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天下の絶景 大觀莊

北湖頭、狼子溝占領 新安鎭陷落도切迫
隴海線附近의大激戰

【○○十二日發同盟】 十日少歸昌을 占領한 ○○部隊는 그餘勢를타서 쉴새업시 南方의 進擊을 繼續 北湖頭(少歸昌南方四里)部落에 依據하는 敵大部隊를猛擊 同日이를 完全히 占領하엿다 쪼끼는 敵은 隴海線方面에 潰走、이리하야隴海線重要地點인 新安鎭의 陷落도 目睫間에 切迫하엿다

【山東○○十二日發同盟】 十日夕刻○○部隊는 ○○部隊의 進擊에 呼應하야 一齊히 行動을 開始하여 狼子溝(少歸昌西南四里)의 敵大部隊를 擊破、南方으로 向하야 潰走하는 敵을 急追中이다

【○○十二日發同盟】 鄆城西方馬頭鎭南方에 主力을 置하고 頑强히 抵抗中이든 二個師의 敵大部隊는 十日○○部隊에게 包圍、退路를 遮斷하엿스므로 逐次將兵의 戰鬪意識이 喪失되여 四分五裂의 潰滅狀態에 陷하엿다

【北平十二日發同盟】 十二日午前十時 軍司令部 發表

一、我軍의 一部는 五月十日午後四時 鄆城西南方約五里의 狼子溝를 占領하고 다시 敗敵을 南方에 追擊中으로 敵軍의 右翼은 逐次崩壞中이다

一、猥山湖西方에잇는 我軍의 一部는 昨十一日 金鄕東北方約四里의 地點에 進出하야 戰況은 順調로 進展된다

厦門市完全占領

【香港十一日發同盟】 十一日午後九時香港 福建總會(福建人團體)에의 入電에 依하면 厦門島에上陸하야 이미厦門市內의 一角을 確保한我海軍有力部隊는 十一日夕刻에 이르러厦門市內를完全히 占領하엿다고傳한다

【香港十一日發同盟】 十日午後六時半英國軍艦 다이아나號로부터의當地入電에 依하면 厦門郊外는早朝로부터 猛烈한 戰鬪가展開되여 十日夕刻까지에 厦門市의西部郊外는 日本軍隊의 손에占領된것을 알수가잇섯다 日本의海空으로부터의 猛烈한砲擊에依하야 厦門市街의 損害는莫大할것이라고 報道하고잇다

【上海十二日發同盟】 外人側에達한報道에依하면 我厦門島上陸部隊는 厦門全島를 占領하고同島에蟠踞해잇든 支那軍은 모두對岸으로 潰走하엿다

【上海十二日發同盟】 我厦門全島占領으로 支那軍은 아플다로이大陸으로逃亡하엿다고 傳하는바 一方民衆은 支那軍에게 逐出되여鼓浪嶼島의 共同租界로 逃亡한者五萬에 達한다 그리고厦門在留外人은 모두安全한것이 判明되엿다

○○基地에 寺西少佐以下飛來

【○○基地十一日發同盟】 十日午後三時頃江北의 靑空에 銀翼을 펴고 北方으로부터 飛來한 ○○機에 對하야 ○○에 待機中의我陸의 荒鷲隊는 『敵機가나타낫다』며오르려다고 한瞬間上空을 亂舞하는機上에서 한가치를 흔들므로 바라보니 機翼에는 燦爛한 日章旗가 輝煌하다 어데서 飛來하엿나 생각할餘暇도업시 着陸한 各機에서 내리는 面面은北支의 陸의 荒鷲로 名파이로트로서 일홈을떨치는 寺西少佐、加藤大尉가 引率한 面面이엿다 互相人事를 바꾸며 相擁하는者 喜悅에 넘처뛰는者 南北兩戰線空中의 勇士와 한데모이여 北支軍萬歲 中支軍萬歲를 불르는 歡聲은 ○○基地에 漲溢하엿다 寺田少佐는 敵戰鬪機八機가 나타낫다고飛來하엿스나 그姿態를찾지못하고 그代身 夢中에도잇지못한 諸君의 元氣旺盛한姿態를보아 이보다 더기뿔것이업다고 祝杯를들엇다

廣東軍의要請으로 蔣、空軍에出動命令
敵十五機厦門方面에飛來

【香港十一日發同盟】 我海軍의厦門島攻略에 狼狽한 廣東當局은 余漢謀의名으로 蔣介石에對하야 中央軍飛行機의 來援을 電請한結果 國民政府는 福州、沿岸地帶의 急變을 憂慮하야 直時 南昌、長沙兩飛行場에 待機中인 各空軍에 出動을 命하엿스므로 十日夜月明을 利用하야 廣東에飛來中 十五機는 廣東天河飛行場에서 給油後 汕頭、厦門方面에飛去하엿다

我輸送隊의活躍 山東平野에버려진

【臨城十一日發同盟】 皇軍活躍의 뒤에잇서 最前線部隊에 軍需品을 補給하며 部隊의移動을 容易케하여 作戰의 動脈이되여 活躍하고잇는 輸送○○部隊의 精銳가 ○○方面의 背後로 나가려고 ○○臺의 주력隊를 集合하야 郭里集에 宿營한바 敵은 十倍의 兵으로써 猛襲하여왓스므로 我○○部隊는 即時 應戰 堅固히하고 二日間에 亘하야 어와 死鬪를하엿는바 我勇猛果敢한 輸送隊의 勇猛함으로 이를 擊破하고 我陣에 依하야 山東平野에 이름을 떨첫다

皇后宮御歌에 遺家族感泣
大野總監에感激한書翰

昨秋 惶悚하옵시게도 皇后陛下께옵서 出征及 應召軍人의 家族、遺族에 對하사 下賜하옵신御歌를 拜하고 朝鮮軍事後援聯盟에서는 이御歌를 謹寫하야 各府郡을 通하야 在鮮遺家族에게 配付하엿시 御歌를 拜한 遺族及 家族은 恐懼感激하야 聯盟會長大野政務總監에게 感激의 書翰이 銃後를 保護하는 軍人家族으로부터 逮附되여 關係方面을 感激케하엿는데 特히 平壤在住出征軍人의 어머니인 猪熊가노女史는

『み恵はいともかしこし武士の折り得し今日の櫻花かな』

라는 歌一首를 添附하야 感激함을 보내여왓다 그리고 慶南昌寧郡南旨面出身 木村砲兵上等兵의妻 木村기요子女史는 左와如한 書翰을보내여 軍國의妻인面目을 세웟다

謹白 今回不意에 皇后陛下御歌의謹寫를 所轄郡守를 거처拜受하게된것은 應召軍人의 家族으로 至極한光榮이요 陛下의臣民에게 베프시옵신 御仁慈에感泣拜銘하옵고 即時 一室을淸淨한後 이를奉揭하야 家族一同衣服을 가리입고 最敬禮를드려 將來朝夕 其敬禮를 不怠하고 一家의 御寶物로 恭順히 이를奉하야 將來永劫子子孫孫에게 相傳相守케하야서 陛下의御仁慈에 率齊치안키를 御誓約하고 玆에 삼가一同最敬禮를드려 御禮를드리는바다

頓首再拜

陸軍砲兵上等兵 木村昌鎬妻 木村기요子

西尾中將參內 三將軍에御陪食吩咐

【東京電話同盟】 北支戰線에서活躍하야 赫赫한 武勳을세우고 今回敎育總監에 榮轉되여 十二日帝都로歸還한 西尾中將은 大森副官을 거느리고 即時 宮內省에서보낸 自動車로 二重橋正門으로부터 宮城에參內 天皇陛下께옵서는 宇佐美侍從武官長을거느리시고 午前十時三十分表御座所에 出御하옵시여 閑院參謀總長宮殿下 杉山陸相이 侍立한후 親히 同中將에게 賜謁하옵시사 北支作戰의 軍狀奏上을 天聽하옵신後 優渥하옵신 말슴을 賜하옵시여 武勳을 御嘉賞하옵시엿다 同中將은 다시內謁見所에進하야 皇后陛下께拜謁하고 御慰勞의 말슴을 拜受하엿다 中將은 將兵의身上을 御下念하옵시는 거룩하신 御仁慈에 對하야 恭遽히 御禮言上하고 御前을 退下하엿다 正午 陛下께옵서는 豐明殿에 出御하옵시사 閑院參謀總長宮、朝香中將宮兩殿下 께서도 御臨席하신바 西尾中將에 압서 軍狀을 奏上한 鈴木重康中將、本多政材少將을 爲始하야 杉山陸相、中村中將侍從長、津次官、松平宮相、百武侍從長 宇佐美武官長을 召하옵시사 三將軍 御慰勞의 御下念으로 午餐의 御陪食을 下賜하옵신後 別殿에서 茶菓를 잡수옵시며 三將軍에게도 御茶菓를 下賜하사 여러가지로 戰局의 模樣等을 御聽取하옵신바 午後一時지나 天機御麗하옵시게 入御하옵시엿다 그리고 此日 西尾中將에 對하야 御紋付 銀花瓶一個를 下賜하옵시고 다시 그勞를 御致하옵시엿다 一同은 光榮에感激하야 宮中을 退下하엿다

西尾中將 閑院宮殿下께御報告

【東京電話同盟】 西尾中將은 十二日午後一時三十分 參謀本部에 參하야 總長室에서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 北支在任中의 任務를御報告言上한後 同二時陸相官邸로 杉山陸相을 訪問하고 同樣의報告를하엿고 同六時부터 陸相官邸에서 陸相主催의 招宴에 臨할터이다

首相、確乎한態度로 諸懸案解決에邁進
戰局의活潑한展開와함께

近衛首相

【東京電話同盟】 오래동안膠着狀態에잇든 戰局도 數日來活潑한展開를보히자 戰局의 展開와밋政戰兩方面의 前途를 豫想하며 九日關西에 旅行한 近衛首相도 十一日豫定과가티 歸京하엿슴으로首相의 病이回復된 以來로지 길듯하면서 依然膠着狀態를 버서나지못하든 政局도비로소 展開되게되야 戰局은 클라이막스에到達하고 今月末부터 來月에걸처政局도 是亦從來의 胎動的裏面的活動으로부터 表面的活動으로變할것으로 豫想되야首相歸京後의 政局의動向은 漸次注目을끈다 現下政局은 首相이屢屢히言明한바와가티 全혀 對支方針一元化에잇서서 議會終了後의首相의 苦慮도 이一點에잇다고하여왓는데 方今戰局의展開에 따라 漸次政戰兩略의 統一이完成되여옴으로 懸案의 官吏制度改革、議會制度改正 對支中央機關設置等 國內諸問題의 解決에着手하야 着着그實現을 꾀할것으로보인다 그리하야 十三日의 定例閣議에는 法制局案의 官吏制度改革을正式으로附議 船田法制局長官의 詳細說明을 聽取할터로同案의革新性에 異論을가지고잇는近衛首相을爲始로 各閣僚로부터隔意업는意見을 交換하야다시案을 고치기로되엿다 그리고對支中央機關問題에 關하여는 가장難關視되든戰局도 一段落을告하고友邦新政府의形態도 漸次整頓되야 對支問題處理上 中央機關設置의必要도 目睫에切迫되엿슴으로 首相은 此際斷乎한態度로써 諸懸案解決에 專力할것으로보여 政局은 漸次事態上에 緊張味를띄게되엿다

南總督快癒登廳

感氣로 倭城台官邸에 靜養中이던 南總督은 十二日午前八時半 元氣旺盛히登廳、直時 稅務監督局長會議에 臨하야 訓示를하엿다

日滿伊貿易에對한 外務省의콤뮤니케

【東京電話同盟】 日滿伊通商貿易에 對한 三國政府代表第一回公式會議는 十日午後三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會 同四十分에終了하엿는데 散會後右內容에關하야外務省으로부터 大要如左한 콤뮤니케를發表하엿다

同會議는上富田外相、阮滿洲國大使及 코티閣下는 各各一場의演說을하야 三代表는一齊히 三國間의 經濟關係를一層緊密케할이可能 且滿足할바를 認定하고 經濟使節의日滿兩國來訪의機會로 前記共通目的 實現에 互相協調할것을 言質을進하엿다

駐蘇支那大使에 楊杰을任命

【上海十一日發同盟】 駐蘇支那大使는 蔣廷黻歸國以來空席대로잇는바 漢口來電에依하면 元參謀次長楊杰을 蔣의後任으로서 駐蘇支那大使에任命키로決定하고 十一日正式으로 發令하엿다 楊杰은 十五日頃赴任할것이라고 言明하엿다

蘇聯製 新銳機七十台 近近廣東에到着?

【香港十二日發同盟】 廣東綏靖公署主任余漢謀가 厦門危急의悲報를 接하고 蔣介石에對하야 至急空軍增援件을 要請한데對하야 蔣介石은 即時 雲南方面으로부터 飛行機二十臺를 廣東方面으로 輸送하엿다고하는바 昨日廣東飛行場에서 支那人飛行士가外人記者에게 말한바에依하면 最近中으로 七十台의 新銳飛行機가 某方面으로부터 廣東에到來할豫定이라고 하는바 이것이果然 어듸까지 事實인지는 判明치안호나 蔣介石이 事實上거의 潰滅的大損害를蒙한 支那空軍의再建에 熱中하고 잇는때 이어서多少의 新飛行機가 蘇聯側으로부터 供給될것은 事實로觀測된다

蘇聯海軍 크軍港擴張

【왈소十一日發同盟】 빨틱海에面한蘇聯의 클론스타트軍港은 今回스미르노프 海軍人民委員의指令에따라 擴張工事를 行하엿다 右擴張工事는 蘇聯最强의 潛水艦根據地로할 最近의 計畫에基한것으로白海와 빨틱海를 連繫하는 一九三三年建設의 運河와相俟하야 白海艦隊와 潛水艦의合同作戰行動을 敏活히 하려는目的에서 나온것이라고한다

伯國首府大混亂 軍隊의쿠데타勃發!
리오·데·자네이로市 叛亂의詳報

【뉴욕十一日發同盟】 U·P로데비데오支局報道에依하면 十一日리오·데·자네이로府에 突然軍隊의쿠데타가勃發되야 方今市內는大混亂에 빠젓다고傳한다

【리오·데·자네이로 十一日發同盟】 인테그나리스로黨에屬하는파니急進分子는 일직부터 브라질政府의 轉覆에 不穩의 氣勢를보이고잇든바十一日새벽을期하야 리오·데·자네이로에서突然叛亂을 이르키여 市內各地에서 手榴彈을投擲하고 小銃을노아 一擧에브라질現政權을 顚覆하려하엿다 于先리오·데·자네이로의各兵營을襲擊 이를占據코저하엿는데 軍隊는 同時에 이를擊退하는同時에 掃蕩을 開始하엿스므로 그後 순식게 鎭壓되야 리오·데·자네이로 市內는漸次平靜으로向하는一方叛亂의內容도漸次判明되엿다 暴動勃發當時바가스大統領은 그家族과함게 叛亂軍에包圍되야 正히 危機에 빠젓슬때 政府軍에게 救出된模樣으로 UP記者네벳트·윌슨氏는 十一日當時의 模樣을如左히報道하엿다 十一日 새벽 綠色制服으로裝한인테그나리스타 黨員數人이海軍省大統領官邸附近에集結 大統領護衛兵의 一部도 叛亂派에 加擔하엿다 彼等은 바가스大統領을 捕縛코저하려하엿스나 大統領은 勇敢히右手에拳銃을 左手에 短刀를들고 一步도 退却치안하야 官邸를지켜 그사이에 急報를듯고달려온 警官隊는 이危機를 救助하엿다 그後 政府軍隊及 警官隊가 추럭에 分乘하고 到着하야 叛亂派를 驅逐하는同時에 三十人의 暴動分子도 逮捕 一方라우아레스提督의指揮하는 叛亂軍本隊는 海軍省을 占據하야 이에嚴重한 防備를施하야 數時間동안이나 警官隊의 攻擊을 阻止하엿스나 海兵團一隊의 動員으로 着劍의 海兵이 海軍省에 突入함에이르러 降服하엿다 叛亂이 어가티急速히 鎭壓된것은暴動勃發直前 政府當局이右陰謀를探知하야 速히 應急處置를 한結果이다

日支間和平交涉 英政府斡旋
췜벌린首相下院서言明

【倫敦十一日發同盟】 保守黨下院議員 한너氏는 十日下院에서 日支紛爭調停에對하야 政府의 方針을 質問한바 췜벌린首相은 十一日下院에서 左와如히 答辯하엿다 日支間의 和平交涉에 對하야는 英國政府는 單獨乃至他國과 共同하야 努力하기를 不惜하는者이다 그러나 日支雙方이 調停을 受諾할意思를보이지안는限 英國이 調停을提議한대도 何等의 效果가업슬것으로생각한다

山西省의殘敵掃蕩

【太原十一日發同盟】 南方山西省의敗殘兵의 掃蕩狀況은如左하다

一、同蒲線蒲州北方 張榮鎭을中心으로 總計約一萬의敵이集結함을 探知한我小林部隊는 九日이를急襲하야 敵에多大한損害를주엇다 敵은吳王渡方面에 潰走하야○○部隊는이를猛追中

一、岡崎部隊는 九日午後榮河東方約六키로 高村에서 退却中인敵三百을攻擊이를殲滅하엿다

三、蒲縣附近에 反覆襲擊해오든敵은我軍의 果敢한 攻擊으로말미아마 潰滅되엿는데 그後我○○部隊는 臨汾、蒲縣、同蒲沿線地區의敗敵을 隨所에서討伐中이다

時事解說
豫審制度廢止問題

最近의 消息에 依하면 鹽野法相은 近近省內에 司法制度調査會를 設置하고 多年의 懸案인 司法制度의 根本的改革을 斷行하려는바 그改革의 中心項目은 一、裁判所와 檢事局의 分離 二、豫審制度廢止와 同時에 行政權을 檢事에게 一任할것 三、[illegible] 四、民事及 刑事事件審理의 簡易化等의 四項目이 列擧되어잇는데 그中 가장 吾人의注目을 끄는바는 豫審制度廢止 項目이다。

◇

豫審制度는 全刑事訴訟法을 支配하는 基本原則에 對하야 例外的인것으로 그改革乃至存廢는 本來上 大端히 困難한問題를 만히內包하고잇다 이制度의 가장 큰缺陷은 [illegible] 豫審中의 被告人의 自由를 拘束하고 自白이아니면 [illegible]

◇

[illegible] 『豫審의公開』、『豫審保全의公表』의 要求는 分明히理想的改革案이거니와 [illegible] 結局은 人權의增加로써 富面의 解決策을 삼을수밧게업다。

海軍擴張和協案 米下院서遂可決

【華盛頓十一日發同盟】 米國下院은去九日 兩院協議會를通過한 大海軍擴張和協案을 十一日表決에附한結果 大多數로써 同案을 可決하엿다 上院에서도 同案은 近近通過될것으로 觀測되여 大統領의 裁可를 어더 十一億五千六百萬弗에 達하는 新海軍法案은 成立하게될것이다 十一日政府高官의 洩漏한바에依하면 루즈벨트大統領은 新海軍法에基하야 今議會休會前에 巡洋艦二隻及小艦艇數隻의 起工費의 緊急支出을 議會에 要求할 意向이라한다 一方下院海軍委員會는目下 上院으로부터 回附된 海軍根據地擴張案을 審議中인바 海軍省當局은 海軍根據地擴充法案總豫算의 眼目이되는것은 布哇眞珠灣 乾독크인데 독크全長은一千呎、幅은百三十二呎、深度四十五呎라는 巨大한것이라고 言明하엿다

人事·集會

◆工藤義男氏(殖銀特殊金融部長) 新任人事次來社

◆金甲淳氏(朝鮮新聞社取締役社長) 新任人事次來社

◆江藤新作氏(同社取締役營業局長) 同上

◆三澤正美氏(朝鮮製鋼株式會社 常務取締役兼技師長) 同上

◆森山淸吉氏(京畿道技師) [illegible]

◆安鍾一氏(醫博)十二日午前一時竹添町 金華莊自宅에서 別世 十三日午後五時 自宅에서 告別式

八面鋒

三少年刑務所 在所者 一千六百名中 殺人放火犯이 七十六名이라고。

◇

少年이 犯罪를 하는것만도 무섭한 일인데、殺人放火라니 무슨일?

◇

알고보면 어려서 强制로 시집간 少婦들이 男便이 무섭고、싫어서 그리워 그런것이라고。

◇

철없는 少婦들의 매우을가엽서 어찌하나 責任의 大部分은 父母의 强制早婚에 存在。

◇

鑛業勞務扶助規則을 發布하야 少年、婦人의 鑛業勞働禁止坑內作業時間의 制限을命令。

◇

늣게나마 勞務規則이 制定된것은 多幸。

◇

그러나 勞働時間을 十時間、賃金支拂回數를 月二回로한것은 너무긴感이不無。

◇

同時에 發布한 重要鑛物增産令은 特殊鑛物에 國策發動 小鑛區의 整理를 包含。

◇

軍需調達上 不可避한 일이라면 그것도 不得已。

銘酒 キクマツ

染物屋·洗濯屋の必需品 染料 洗濯百貨 京都市上京區堀川東入 商店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移轉開院廣告
本人이 世富蘭偲病院構內에서 左記場所로 移轉開業하엿나이다
(入院室完備 往診市內均一)
京城府元町三丁目停留場南西向
內臟外科 ×光線科 高外科醫院
ドクトルメデシン 미국의학박사 高明宇
電話龍山二〇五三番

京城府仁寺町一七六番地(寺洞四街里)
內科 小兒科 姜內科醫院
醫學博士 姜聲郁
電話光二六六五番

病狀 鼻汁 鼻塞 嗅覺
코흘리고 막히는대 速하고바른治療法
確報堂藥品部

青年諸君! 光明ハ技術カラ求メヨ
本所ノ講師ハ自動車界代表的名講師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朝鮮第一自動車學院

本報慶北支社 大邱府京町 電話一三四四番

海外支拂節約코저 書籍에도"戰時體"
外國書籍雜誌의輸入制限을
學務局長、管下에通牒

학도는 연구도서를통하야 현하비상시경제에 협력을도모하고자 해외지불을 절약하기위하야 외국도서잡지등의수입을 될수잇는대로 제한하기로되엇다 그내용인즉 학교직원의 연구용도는 도서관비치등의 외에는 외국사정연구에 지장이업는한도에서 외국도서,잡지구입을 극력절약하기로 결정한후 각도지사,대학,각전문학교,각관립학교 각도서관에 학무국장(鹽原)으로부터 십이일 다음과가튼내용의 통첩을발하얏다

一、外國圖書雜誌는 研究上必要한것以外購讀을 中止又는節減할것

二、學生生徒에게 使用시킬 參考書는 原則的으로 外國圖書를 使用시키지말고 可及的國內印刷又는飜譯印刷를 하야 使用케할것

三、外國圖書目錄、目次等과가튼 高價의것은 一學校、圖書館에서 購入한圖書를 相互利用을 圖하며 購入의節減을 圖할것

四、課業用圖書 雜誌는 豫先購讀을 ... 할수잇는것은 原則的으로 購入을아니할것

內地와北支와의 交通連絡을擴充
朝鮮、滿洲、支那直通運賃도制定
今月下旬交通連絡會議에附議

【奉天十一日發同盟】 북지방면이 급속도로 약진하고잇슴에따라 내지 조선 만주와북지와의 교통은 최근매우빈번하게되여 그구간의 상호연락교통을 정비확충하는것이 대단긴급한 문제로되엿슴으로 만철에서는 철도성조선철도국 북영철도국(北寧鐵路局)기타와 밀접한 련락을취해가면서 화물려객련락운송에관한새규약을 제정하고저 절충중이엇는데 이것을 이달하순에 열릴내지,조선,만주,북지 교통연락회의(交通連絡會議)에부의하야 대강을결정키로되엿다 그안의 내용은 현행 만철북영(北寧)간의화물려객 련락운송규정의적용범위를 철도성조선철도에까지연장하야 새로 내지,조선,만주,북지간의화물려객 연락운송규정을 체결하야 일만내지와 대륙간의련락하는 교통연락의 신속을도모하고 현행일만화물직통운임(直通運賃)제도를 다시북지에까지연장하야 일만지 화물직통운임제도를 새로히 제정하며 통과업무(通過業務)의 신속을 도모키위하야 화물통관규정을 제정하기로되엿다 그밧게도 조선과만주사이의 무역발전에 빼처서,조선,만주,지나직통운임을 새로 제정케될것이다

平壤基督聯合會
要路에積極援助懇請

지난사월이십구일 천장절에는전조선기독교도 사십만명이 일제히 봉축식을 거행하고「성수만세」를 고창하야 일본적기독교의 확립에 첫거름을 내디딘후 계속하여 각지에서 일본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연합회가 결성되엿는데 평양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요지음 조선기독교사의 한「페ー지」를 장식하는 이천장절봉축식의 기념사진두어장을 총독부헌병대 기타요로관계방면에발송하는동시 연합회의 금후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원조를 간청했다

下境坪驛、台城驛 普通驛으로昇格

철도국에서는 백무선(白茂線)하경평(下境坪)간이역을 보통역으로 또 평남선(平南線)태성역(台城驛)은 역원배치역으로 고처서 오는유월일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한다 하경평역은 최근에 목재(木材)가 만히 나오고 또 태성역은 승강객이 하로에 평균백명

列車進行妨害 木材滿載한트럭

십일일오후아홉시반쯤에 인천서 경성으로가는 제사백륙렬차 ...

殊常한靑年 列車서跳下重傷

십일일오전일시사십분경에 청진(淸津)으로가는 제오백륙렬차가 동경성(東京城)창동(倉洞)사이를 진행할즈음에 삼십세전후의 조선남자한명이 뛰어나린것을 렬차수(列車手)가발견하고 급정거를하야 사부간이나 찾지못해서 도수한출로 알고 그사실을 보고하엿다 그역에서는 곳보선원(保線員)을 현장에 파견하야 수사한결과 그부근밧속에서 신음하고잇는 그를 발견하엿다 그리고한편 ...

全朝鮮各工事場의 不潔한"밥집"大手術
總督府에서調查後改善을嚴命

노동자의 대동원과함께 은성을 거듭하고잇는 각지토목건축 기타 각종공사장의 시설물에대한 문제는 해마다 총독부당국에서 그개선에 부단한 노력을하야오는중이나 노자(勞資)협조 기타 여러가지 실정관계로 아직까지도 오히려 다소불완전한 경향이잇다 그중에도 특히 일부 밥집(飯場)설비가튼것은 영양 기타 보건위생에 중대한 관계가잇는데 불구하고 가옥(빠락)의구조가 비위생적일뿐아니라 음식물이 또한너무 영양적이못되므로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이를각공사장밥집을 세밀히조사하야 불완전한곳은 단연개선을 엄명하고자 지난사월하순부터파원을 각지현장에 파견조사중이든바 함경북도 장진허천강(長津虛川江)수력전기공사장은 이미 조사를 마치고 일부불완전한밥집의 개선을 엄명하엿다 그리고도기타 각지공사장에도 밥집조사를 급히하는중인데 즉공사장에불완전한곳이 발견만되면 단연용서업시 개선을 엄명할터인데 이로써 각지에동원되는노동자의 숙식은 종전에 비하야 다소편의를 보게될모양이다

白衣勇士百廿名
十三日午後龍山驛에凱旋

백의용사 일백이십명은 십삼일 오후여섯시에 용산역도착렬차로 귀환할터이라한다 이가운데 장교한명 준사관 여서명도 석겨잇다한다

少女失踪

본적을 북대구부남경산정(大邱府南山町)에두고 얼마전부터 부내삼청정(三淸町)일백삼십삼번지 조영복(趙永福)방의고용녀로잇는 최필보(崔弼分)이라는 열네살먹은 계집아이가 주인의 심부름으로 십일일오전열한시쯤해서 효자정(孝子町)방면에 물건사러나간채 도라오지안흐므로 흑은 못된자들에게 유괴되지나아니햇나 의심되여 주인조씨는 방금 각서에수색원을 제출하고 행방을 찾는중이다

歷史會에朝鮮側出席

문부성(文部省)에서는 국체명징(國體明徵)일본정신의앙양을위하야 역사학의내용과 방법과 그교수의실제를연구토의하라고 유력한인사를 모아 ... 부터 삼일간 일본제학진흥위원회(日本諸學振興委員會)제일회역사학회(歷史學會)를 열고 칠월이일에는 그것의 공개강연회를 열기로 되엿슴으로 여기에출석할사람을 보내라는 지시가총독부에왓스므로 조선에서는 대회사범학교 교수원시학관 시학사 최교유수 사릉 여러사람을 파견하기로되엿다

汽車通學生의 狀況을調查
廿六日부터"保聯"에서

경기도보도련맹(保導聯盟)에서는 소학생과중학생중 저학년급생도중에 교통훈련이 철저하지못하야 참담한교통사고(交通事故)의희생이되는일이 만흔데 비추어 교통훈련의철저를 기하는 야 교통업자 학교당국과련락하야 교통도덕의철저를 기하고저 어십사일에 련계자를 경기도청에초치하고 교통도덕회를열기로되엿다 그런데경기도내에서는 경성서내의학교에기차통학하는 생도가 해마다늘어가는반면에 (중간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를 이르키는일이 ... 또는 열차안에서 남녀통학생사이에 풍기를 물난하는일이 만흔데 비추어 오는이십육일부터 기차통학생상황시찰(汽車通學生狀況視察)을하기로 되엿는데 첫날은 경성—수원간, 이십칠일은 경인간, 이십팔일은 용산까지, 삼십일은 경원선 연천(漣川)사이를 각각 시찰하기로되엿다

芳香 イナミン 一吹必殺

優良商工從業員 表彰式擧行

【全北支社發】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십오일 오전십시부터 산업장려관이층에서 제삼회우량상공종업원(優良商工從業員)표창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고한다

스포ㅡ츠

比島籠球勝捷
對立教大學戰에

比島籠球團(比律賓)의 東京에서의 第一次戰인 對立敎大學戰은 十日午後七時十五分부터 國民體育館에서 三橋竹崎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四十七對四十二로 比律賓軍이 勝捷하엿다

比 47 (27 20 … 17 25) 42 立敎

이날 立敎軍의멤버ㅡ에는 金鼎鎬君이 「까ㅡ드」로 出場하엿다

怪! 闇夜에壯漢이突現
醉客兩名의"귀"切斷
今曉黃金町六丁目에서

술이취하여 비틀거름을 치고 큰거리를 지나가는 통행인의귀를 예리한면도칼로 베여버리고 어둠속으로 자최를 감추어버린 엽기적사건이 발생하엿다 십일일밤 열두시경에 시내태원정(泰昌院)이백이십오번지에사는 목대(木手)수전연정(秀田年正)(三二)과 송산공웅(宋相會)(二?) 두명이장충단에잇는모씨의잔치에참례하여 술이만취하여가지고 자기집으로 돌아가는길에 황금정(黃金町)육정목 전차정류장에서 전차를 타려고할때에 어둠속으로부터 한명의장한이 뛰어나와 두사람은 귀가 베엿는지도 모르고 귀에 손을대이니 피가 철철흘으는것을 보고 그때야 귀가 베인것을 알고 뒤도라보앗스나 가해자는 간곳이업고 당장어떠케할수가업서서 부근병원에서 약간의 치료를 해가지고 집으로도라가는길에 거수자(擧動者)환영장을 차저와 숙직경관에게 대략 사정을 말하고는 술도 취한것이고 또 엄하야 귀를 베우고 분하기도 햇겟지만 부끄러운생각도 잇섯든지 자세한 이야기도 아니하고 그대로 집으로가버리엇다고한다 귀를베운 사건에 지나가는사람의 귀를베는 일이란 전에업는 괴상한 범죄이어서 경찰에서는 십이일 오다시 사정을 조사하야 범인을 체포키에 노력중이다

司法主任談 그가티 사람이 서 한사람도아니고 두사람의 귀를 예리하게로 베여버렷다는것은 그다지처음되는 사건이여 아직범인이 체포되지 안엇스니 무어라고 말할수는업스나 그럼 각컨대 무슨 에밀한이유서 그런짓을하지나안흔는가요?

大田府도"市計"
區整地區決定 12日公布

충남대전부 시가지계획구역과 동 가로및 토지구획정리지구는 다음과가티 결정 공포되엿다

區域 【大田府】 大田府一圓 ... 中村里의一部、弘道里、佳陽里、山所里、 ... 千九百四十萬平方米

가짜債權者

작년시월 ... 경성에서 ...

棄兒

... 되어 부내 ...

五月異變
長津과三水에 白雪霏霏!
農作物被害도多大

【咸南支社發】 오월도중순이나지나 초여름의신록을 자랑하는이때에 장진하갈(長津下碣)지방에는 눈이 날리고잇다 십일오후 일곱시쯤부터 비가오더니 아홉시쯤부터 기온이급히내려면서 눈으로변하야 황초령(黃草嶺)에는 약다섯치가량이나 눈이 싸혓다고한다 이지방에서도 벌써출아된 일부의 감자 모든농작물이 입어서 그 피해가적지안타고하며 오월중순의눈은보기드문일이라고 놀래고잇다 그리고한편 삼수군삼수면중평장(三水郡三水面仲坪場)에서도 지난십일오전부터 기온이갑자기 내려서 일곱시쯤부터 두어시간동안 눈이나려서 아편(阿片)경작에 만이 아니면 보지못할괴이한(怪候)를 어루고잇다한다

北滿地方은 零下12度
防寒具再登場

【奉天】 봄날도 거이 지나려는 이때에북만(北滿)일대에는 몽고방면의강렬한바람이불러오더니 이바람과아울러 눈이 분분히나리고 잇는바 적설이 오촌이상에 달하는데영 ...

國際拳鬪出場할 朝鮮代表豫選大會
釜山、光州、晉州、木浦、統營서參加
滿都팬의人氣總集中

만도권투팬의흥미와기대를 담북이끌고잇는 전조선아마츄어권투련맹주최와 본사후원의 비률빈(比律賓)선발군초빙전 조선대표예선대회는 오는십사일오후세시부터 안국정회관소학교교정에서거행하기로되엿다 영예의조선대표될군무며 중앙무대에진출할 지방선수로 멀리부산(釜山)을비롯하야 진주(晉州)목포(木浦)광주(光州)통영(統營)인천(仁川)등지에서 맹장들의신청이잇서 공전의성황을예기하고잇는데 경성에서는 이번이대회를계기로 분리되엿든 권투구락부에서는 잇는힘을 한데뭉처서 통일전선을 베플자는 일반의요망을드러 종래의 압루를 시처버리고 참된 스포ㅡ츠맨의 발노로 명랑한 제일보를 내어드딜기운이 떠돌고잇슴으로 금명일간에는 시내 각오수다채의 참가를 볼것으로 기대되는바 근래에드문 백열전을예상캐하는바 참가신청은 명십삼일오후세시까지 접수하기로되엿스며 계량(計量)도 동시에 혜화정(惠化町)조선서무구락부에서 행하기로되엿다

平壤蹴球大會 盛況裡에開幕

【平南支社發】 ...

車體를嚴密檢查
京春鐵道에警告發送
祭基町交通事故後聞

전기사고의 중경상자 씨명은 다음과가튼데 처음에는 부민병원에서 응급치료를한뒤 대학병원에옮기여 치료중인데 모두일주일내지일개월가량의 상처이다

▲楊平郡 ... 任放俠(二七)
▲始興郡東面始興里 ... 李時鎭(二七)
▲鐵道局 ... 李萬鎬(二三)
▲府內蓮池町二二九 李丙學(二七)
▲府內橋北町七의五六 朴寅燮(二八)
▲府內新設町一三三의一二八 朴昌圭(二三)
▲府內孝悌町二二二 金榮基(二三)
▲府內益善町四六 事故運轉手 池九君(二一)

色鉛筆

시골서 올라온 어떤분이 본정어느큰시계방에가서 시계를하나 흥정한다 ▲보통으로 치면 갑슨정가표대로 내이고 시계를 하나골르엇나 ... 그러하시요 시게흥정은 의레히 이럿케 한다니까하고 ...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本邦南東方海上으로 本州及 日本海南部로 퍼지고 天津新京附近日本海等에弱한低氣壓이잇서 不連續線을 그리고 함께 東進하고잇다 日氣는 朝鮮과 滿洲는 대강개이고잇지만 滿洲東部에서 朝鮮北東間에 걸처 處處에 小雨가잇다 內地도 一般으로 日氣는 조흐나 北海道가 흐리고 樺太에는 비가오고잇다

豫報 今日은 南西風이불고 一時흐리다 明日도 南西風이 잇슨뒤에 흐리다

昨日最高	一九度四	
同最低	一〇度二	
今朝最低	九度〇	
今日正午	一九度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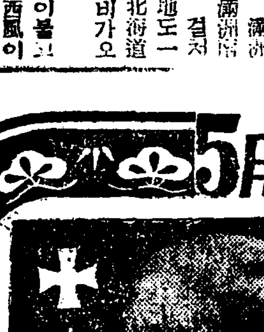
오늘의라듸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合唱(京城) ▲七時二〇分(大) 歌謠 ▲七時四〇分(東) 講演 ▲八時(東) 浪花節 ▲八時三〇分(東) 舞臺劇

第二放送 ▲午後六時 어린이科學 李僖榮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 經由解說 李明世 ▲七時三〇分 講演 金浩植 ▲八時 바이올린 金敬勳 피아노 桂貞植 ▲八時三〇分 野談 (京)李蘭林 ▲八時三〇分 小說朗讀(平) 崔明珠 ▲九時 歌詞 李王職雅樂部員 李炳星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5月13日➡15日 滿員御禮

乙女に告ぐ!! 絶賛を浴び 続映に入る



〇〇は神に祈す
監督 ワルター・ライシュ
主演 ミリアム・ホプキンス
讀賣・メトロ・ユーニ 日朝
發聲ニュース映畫 彩色漫畫

薗の光
監督 佐々木康
主演 高峰三枝子 …

明治座

金銀房의福音
春夏節로陳列이不足한盛賓되는人造貴金屬의高級品販賣하실분은店印捺印時勢表請求하시면時價贈呈 見本無代進呈
京城府本町二ノ二六 朝鮮セルロイド工業所

內科ヂストマ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三三 振替京城五七八〇

13日の金曜日
「君と踊れば」の ジェシイ・マシウズ 主演 ヴィクター・サヴィル 監督
三和商事提供
ゴーモン・ブリティシュ 精作本年度の巨篇!
日活多摩川の本格的科學探偵映畫
令嬢殺し犯人
原作 竹田敏彦 主演 宇佐美淳 江川宇禮雄 旅の風來坊 同時封切
日本一の絶跳タップダンス 十四・十五二日間の特別サービス 朴殷燮氏の實演
本部學務課推薦 スキッピング・グローブ
午前中割引致シマス
十三日封切
黃金座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 蔘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습니다
本劑는聯合홀몬劑인故로身體內部로부터精力을增强시키며精力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等으로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効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全國各地有名藥局及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定價 五圓 二圓八十錢
無代進呈 見本並ニ說明書
製造發賣元 京城鍾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代理店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大阪 合名會社 大木合名會社 京阪 株式會社 高橋盛大堂

李花十字印純良薬品

星A印純良薬品

營業種目

一般醫薬
各社新薬
有名賣薬
工業用薬品
醸造用薬品
寫眞用薬品
農藝用薬品
衛生材料
醫科器械
ゴム製品

卸

御注文은多少를不拘하고
御下命하심을바랍니다

營業月報는醫家用、薬種商
用、賣薬商用의三種을發行
하오니月報希望하시는분
은申込하십시요、申込時에
는貴資格과職業을通知하
야쥬시기바람니다

株式會社

新井薬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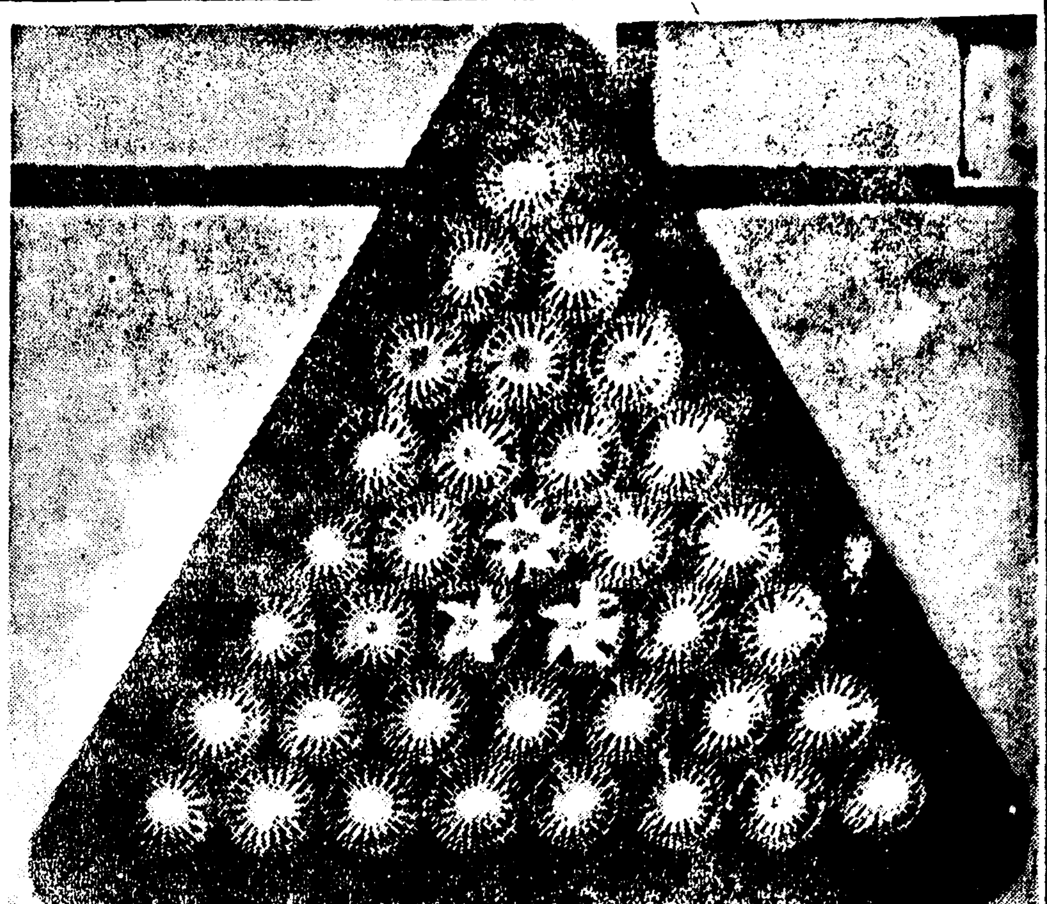
電話本局 四〇九番 九〇四番 一〇六八番 二四四八番 五三三六番

振替口座 京城一六番

私書函 京城局一六番

受信署號 ケイゼウクスリ

家庭



채소만히먹으면 짠것이생각난다
그래서조선사람은짜게먹는가 단맛도여러가지종류

조선사람이나 일본내지사람은서양사람보다 확실히음식을짜게먹습니다 그것은웨그럴까―늘 짜게먹어버릇해서 그런지 그러치안흐면무슨 생리적 관게나잇는지 이아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첫째 음식맛에잇서서 서양사람의 맛의가지수와 동양사람의맛의가지수가 달릅니다

서양사람들은 시다, 달다, 짜다, 쓰다―하는 네가지맛을늣기지만 동양사람은그러치안습니다

말하자면 시다, 달다, 짜다, 쓰다하는 네가지외에도 알카리맛을합해서 다섯가지로합니다 그외에도 맵은맛을 더집어넣흐면 여섯가지가됩니다 그러면 서양인은맛을 네가지만 알고 동양인은 여섯을아는폭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대표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이소금은 음식의간을 마추는것만 아니라 우리몸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잇습니다.

그까닭은 동양사람은 채소를 만히먹게되는데 채소를만히먹으면『카리』이 우리몸가운대만허집니다. 카리이 만허지면 자연 나트룸을 요구하게됩니다. 즉 나트룸을 중요한 성분으로하는 소금을 만히먹게되는것입니다.

대체로 시골사람의음식이 짜게먹는데 그것은 밧가래서 늘 일을하므로 땀을만히 흘리게되고 땀을흘리면 땀에 소금이 섞기여나오므로 자연 음식을 짜게먹는것이라고하는데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잇지만 또한가지 이유는 시골사람일수록 채소를 만히먹고 고기를 못먹는까닭에 그러한것입니다.

그야 시골사람뿐만 아니란구주든지 고기를 적게먹고 채소를 만히먹으면 짜게먹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놓실과나 채식만하는 아푸리카 흔인들에게 소금을주면 마치 사탕을 먹듯이 맛잇게 먹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에게 소금을주면 여간조하하는게아니데 어떤목장에서는 하로하번식 일정한시간에 소금을 먹이는데도잇습니다.

대개 무기물(無機物)은 단등으로 한가지만쓰면 몸에 유독 한까닭에 여러 가지를 섞해야합니다. 말하자면 소금도 무기물인까닭에 아무리 엿게라도 한가지만으로해가되므로 여기에『카룸』이라든지 칼슘을 섞그면조습니다

이소금이 제일만흔데는 바다물인데 어바다스물을 어 심오분의하나 비례로 물을 섞거가지고 단리빗가흔데 와리면 대단히잘됩니다.

한가지 재미잇는 이야기는 호랑이나 사자가튼 맹수들이 다른동물을 잡아먹을때는 몬저피부터 마시고 그다음엔 살을먹고 그리고배가부르면 다른고기는그냥버리는것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가운데는 여러가지 무기질(無機質)이잇는까닭에 그것을 먹으면대단히 조흔까닭입니다. 그런데 바다스물가운데 무기질 성분도 피의성분과 비슷합니다.

이상과가티 짠것을 대표하는것은 소금이고 신것을 대표하는것은 초입니다.

그다음엔 단것을 이야기하겟습니다 가튼 단맛가운데도 여러가지가잇습니다 보통 우리가생각하는것은 사탕의 단맛인데 이사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잇고 또그 종류에 따라 맛도다릅니다

사탕의 단맛을 비교해보면 보통우리가 쓰는 사탕의 단것을 백으로치면 파당(果糖)은백칠십삼 전화당은백삼십 포도당은… 삼삭、기시로―즈사실、맥아당(麥芽糖)사십이、유당(乳糖)십육―이런 정도로됩니다.

보통우리가 쓰는사탕은서다(蔗糖)이라하고 파당은 파실의 단것을 뽑아낸것이고 포도당은 포도의 단맛을 뽑아낸것이고 유당은 젓에 단성분으로 되엿습니다. 맥아당(麥芽糖)은 엿의 단것입니다.

전화당이란것은 파당과 포도당을 한한것인데 꿀은 이것이나 다름업습니다.

그런데 우리네가 대체로 음식이나 과자를 달게하는데는 사탕을 만히쓰나 세계가운대는 꿀과가튼 것을 쓰는곳도 적지아니합니다.

례를들면 북아메리카에서는 단풍나무의 즙을짜서 꿀을 만들어 쓰기도하고 열대지방에 가면 사탕야자에서 뽑은것을씁니다.

보통사탕은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내는데 세계대전이후엔 사탕수수는 차차업서지고 지금은 사탕수수만을 씁니다.

그런데 화학적으로 보면 사탕이라고만은 사탕과 사탕수수로만든 사탕은 성분이 꼭가지만 서양사람들은 커피차엔 반드시 사탕무에서 낸 사탕을 넛는다고합니다.

앵무새의모성애

어미앵무새가 제새끼에게 모이를먹입니다. 밥과주둥이로 입울버리고 맛단것을 먹여주니 어미의 사랑은 매한가지입니다.

테이불쎈터―
東京女高師卒業生展

金明子

강숙에챙겨둔옷 좀안슬게하는법
모직물에는사염화탄소

겨울동안입어서 겨울옷을챙길때는 벌레를 확실히 쫓어야합니다 좀이 질어서 옷을입지못하게되는수가잇습니다 구나 지금은 순모로된 옷감은 아모로 구하기 어려운데 양복한가지라도 버리게되면 큰일입니다.

강옷가튼것은 물시 대리워진 해면 걸리넣어야하지만 털같은 그냥집에서 간수하는데 털옷 모지가 들시끼는고로 그 솜옷엔 봄에 해충은 벌에 지들이 살기가 쉬운것은 일단 …

그다음엔 몸통이로 파탁팍하고 잘 잘털이합니다. 그리고 소메나 깃잇는데엔 희밧치 칠이 하고 다시 젓은 수건등에 대고 대리미로 누르면 좀이 잘 다립니다. 비단오도 더 죽하게 빨잡니다.

이러게 손질한다음엔 의류에 너허두어야한데 죽가튼 버리지 않고도 …

지는 의류에 벌새이던지 그 티치안흐면 의복에 알았든 여어디하면 그대로 옷을 너어둔다든것은 대단히 자미 적습니다 다 그속에서 알깐거나 이뒹이는버리가 나와서 옷을상합니다.

그러므로 어버리지와 버리지알을 한꺼번에 멸을 시키는 데는 약을써서 죽이는수밧게업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쓸수 잇는약은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가 제일입니다

이약은 옷에너헛다가도 쉬게 날러가 버리고 옷감에 무더도 각이 상하지도안코 회발유처럼 불이 당기지도 안어서 대단히 조습니다.

이약을쓰는 방법은 양복의 큰 것, 설한통이잇지안습니까 그안에 파당을만한 의복이면 한파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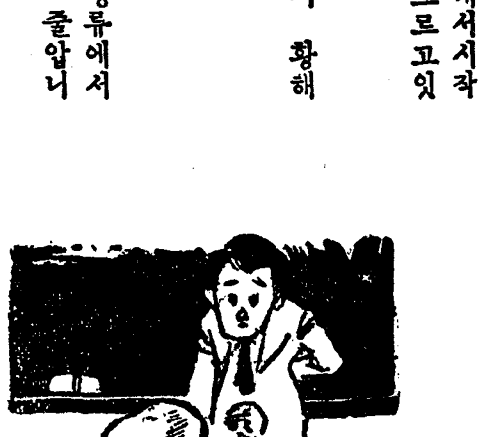
그런데 옷감에 약을 우에다 흔드러 먼저 넣고 조습니다.

그러므로 넣고 유행 옷을 막을으로 넣어서 사오시간을두면 그속에서 까쓰가 생겨서 벌레가 죽습니다. 이렇게하면 지 전다 죽습니다 이러케하면 버리지란 버리지는 알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장에 넣치안코 버리지도 안전히 업서집니다.

그러나 방충제(防蟲劑)로서는 죽지안는 벌레도 사가튼데 너허둘때는 하도 등 죽입니다 만든약이 조습니다.

죽입니다 「마라지꾸론―빼지른」만든약이 조습니다. 그리고 겨울보다도 지금부터는 벌레가 활발해지니까 약은 만히 넛허야합니다 그리고 두달에 한번식은 처음너흘때만한분량을 다시너허야합니다.



지차리우

선생
「압록강은 어데서시작해서 어데로 흐르고잇슬까요」

생도
「네、백두산에서 황해로흐릅니다。」

선생
「정말일까요」

다른생도
「글세요 저는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줄압니다」

(공주사람 명기완)

어느가정에서나 작만해둘만한연장
목수、떔쟁이의신세질것도업시 웬만한것은집에서돼

못쓰게된것 살려서쓰자

집안의물건이 상했을때고치는 것은물론 못쓰게된물건에서생기는 새로운재료 나무판대기 이런한것을가지고집안에서 필요하게된 물건을 만들어쓰도록되자면 위선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어떤것이 필요할가 … 그만두고 어느가정에서나 장만해두고 두고두고쓸만한것을 설명해드리겟습니다.

목공에쓰는도구

간이한목공도구로 어느가정에나 가야되지안습니까 그러나 목공도구 금공도구를 필요하게하고 작만해두어 보시지요 이 고 대패、톱、송곳、장도리들은 한개식은 잇슬줄압니다。집안에 이만것이업스면 여간곤난하지안흐니까요。가령 밋작하나를짠다 합니다。선반을매다한시다。그만한 필요한연장을 드리함두게되습니다 제말하건조흔 문제가안됩니다。그러므로 지금부터 정렬해서

◇

위선 톱이필요합니다。하나는 동날이 양쪽으로잇서 한쪽은나무를 기리로켤때 쓰고 한쪽은 여프로 빨게쓰가생다고합시다 쨍이를 불리대거나 떼칠려

로 벌때 쓰도록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의실톱(絲鋸)이라고해서 나무를새여오릴때쓰는 톱입니다

먼저의 양쪽으로 날이선톱으로 말하면 날이굵은편이 나무의섬유를따러 기리로비는것이고 날이고운편이 나무의 섬유를 여프로 토막치는것인데 톱질할 올드러하면 독바로 비여지지안흐니까 살곰살곰 틀어야합니다

톱은 끄슬잡고 적대 단단잇시고루희고 도때려보아 쨍쨍하는소리나는것이 조혼것입니다

실톱은 먼저도 말하거니와 얇은 판자가튼데에 연필로 모양을 그러노코 도려내는데 쓰는것입니다.

◇

그다음에는 대패가잇습니다。대패에는 세가지가잇서 위선대패거미(?)는것 그다음에 좀날게 미는것 그리고 …이 세가지입니다.

◇

송곳―못박을 구녕을뚤을때 쓰는데 끄지 삼각형의 세갈로된것과 사각의 네갈로된것이잇습니다 쇠못을박을때쓰는것은 세갈송곳、굿나무못이나 대못박을구녕을 뚤을때는 네갈송곳이조습니다。

◇

끌에는 나무의길을 가루처패내는데쓰는것과 그리케패낸자리를 끔거다듬는것두가지가 잇습니다。

◇

조각도 즉나무를 새이는칼에 도 세가지가잇스니 정작색이는 칼(田刀)조각할때에 평면을파내는 둥근(圓鑿)칼끄치 둥그스름하게 되어 둥그스름한 부분을 깍거내는데쓰는것입니다。

어여에도 곡척、장도리、줄、나사송곳、못빼는것、수돌서너가지…이런것은 꼭잇서야되…

철공에쓰는도구

쇠붙이를 다시살리쓰는데 드는 도구는 무척 종류가만습니다만 보통필요한것을 들겟습니다.

▼철사와 잔못을 끈는주동이꼬부라진 찌께

▼보통찌께―이것은 철사를 꼬부리거나 물건을 집는데 씁니다.

▲펜치―쇠끈는지께와 보통지께의 역할을 다하는것인데질사끈는날이 여메달리잇습니다

▲생철비는가위

▲쇠톱미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맨드는 줄(鑢)이것도 크고적은것이잇는데 두서너가지꿈잇스면 매우조습니다。

▲콤파스

▲땜질하는데쓰는 구리인두인데 숫불에나 까스불에나 달궈수잇습니다。달구는 정도는 인두꼬지에서 꾸개파―란 불꽃

이 여러넘정도가 알맛습니다 그러케 달군인두끄를 염회아연액(鹽化亞鉛液)에 잠깐 적십니다 하얏게 식힌것)에 피직소리가 나게 담거삭혀서내여 땜질할자리에 펴서바르고 땜납을 찍어올려 서굿는면됩니다。

그러데 인두가 너무달면 땜쇠가 잘부러오르지를안흐니까 매우주의해야합니다。

땜쇠는 『한다』라고 부르는데 석(錫)과 납(鉛)을 반씩섞거 녹이것인데다만 생철같은데에는 석이 조금 여섯에 납이넷 비례로된것이 조습니다

▲장도리―대가리가 둥근것과 평평하게된것 두가지가잇습니다。

▲엔、말하자면 나무장도리것지요 철판가튼것을 펀다든지 꼬부린다든지 할때에 쓰는것인데 쇠장도리로치면 쇠판에 흠이생길 이상하고 우룸우룸해지지만 이 메로치면 그런일이업습니다

長篇小說 愚氓 【28】
朴泰遠 作
洪祐伯 畵

향이라 사랑이라 하스의(?) 이 조화로운합니다.

이 야기를 한짝에 넣는 감조하는게 엇지안흘니까 이갈조는 방수나 통교지방의 퓌에 자라는것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

랑과는 아조 다른 구조에가지고잇습니다.

「사키린」은 사람보다 몇배나 달다고하나 사탕하고는 아주 딴물질입니다 어쨋든 여러가지 다른것이잇스나 지금사탕의 성분이아닌것이 만습니다.

거리의哲學者 (1)

서울거리에 명물이 하나 생겻다。

종로네거리에서부터 경성우편국까지 이르는 전차길을 공연히 일업시 아침나절부터 해질때까지 헤매도는 사나이가잇다。

『코올텐』바지에『코올텐』잠바를 입고 맨발에다가는 흰고무신을 신은 사나이―눈나리는 날에도 모자를 쓰는 일이 업는 그의 명수룩한 머리에는희머리이 절반넘어나 섯기여잇서 도 그것은 결코 나이 탓이아니라 아마도 어렷을에 숫지까닭인듯 한층다리가 부리저서 확하고 무릎 한께 먹기라도한 굵은 삼청실로 꾀여맨 대모테 안경을 쓴 모양하고 나이는근 작 사십이 되엿슬가 말가하다。

언제부터 그가 서울에 나타낫는가 하는것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어내는 재주가 업다。

그러나 하여른 어해―갈을면 봄어서부터다。이름도 알수업는 그사나이는 언제나 한모양으로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꼿고 가장 기픈 생각에 잠겨잇는 사람인양 언제나 똑 가튼 무거운 걸음거리로 거리를 헤맨다 그의 입에 물려잇는 물뿌리에 낀 담배꽁초를 이줄수 업다。그러나 누구라고 한사람 그 담배에서 연기가 이러나는 것을 본이가 또한 업다。불도 부치지 안흔 담배를 입에 문채 위론일을 그는 똑가튼 걸음거리로 똑가튼 거리를 일업시 가고 또 온다。

얼 어시?―아니 흑은 그에게는 일이 잇섯는지도 모른다。그는 어쩌가다 한번이나 흑은 두번 자기 여플 지나치는 상십전후의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잇다。그리고는 가만히 한마디 중얼거린다。

『아니다 볼라는 사람이다』 하고――

그러나 우리 그런일이 만히 생십전후의 어떠한 여인을 마음에 찾고 잇는듯 도시 섯거간 여이 그사루에 그는 어쩌면 시굴에서 올라온 사나이는 다지 추측하지 안흔다 벌써 … 그러한 시골여인이 예전에 그와 연인 이엿는 지 알수없다。

잇다 그러나 그의 심각한표정이며에서 나오는 이른이엿겟지 누구의 인에서 나오지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를 일 지어『거리의 철학자』라고불럿다

『거리의 철학자』

좀 경박한 느낌이 업지는안 허도 당당 그 사나이에게 그만큼 꼭 어울리는 이름은 다시 업을지도 모른다。그 이름은 원사리 한사람의 입에서또 다른 사람의 입에 올마,그가 거리에 나타난지 한달에가 채 다 못되여 거리의 칠학자는 장안의 명물이 되엿다 그리나 잘 뜬 세상의 그와가튼 인끼와명 성은 그를 조금도기쁘게 안하고 또 똑가티 술로개도 안하 는 모양이엿다。그는자기의 이 틀이 장안에서 그만큼 노파진 것도 전연 모르는듯시퍼고 설 혹 알수 잇섯는지라도 그리한것 에는 무관심한 모양이엿다。

어제도 오늘도 그는 똑가튼 거리를 헤매며 간혹 여럽 지 나는 여인을 도라보고

『아니다。볼리는 사람이다』

또는 생각난듯이 한길우에걸 음을 멈추고

『가난한것은 죄악이다。』

그러한 말을 주얼거리는 하 엿다。그러면서 언제고 불이 붓 지 안흔 담배가 그의 인에서 떠나지 안핫다……

그말에는 역시 진리가 숨어 잇다。

그랫는 물은이가 한을이 아 니다。일즉이하는 서울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그러한말을 들을 수 잇서던것을 신기하게 기뻐 하고, 실없는 중정생은, 다시그 에게서,

『아니다。볼리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을 또 들어 볼수 잇슬까 하고, 얼마동안 그의뒤 를 따라다니기도 하엿다。

붐명히 그는 실신한 사람일 것이다。그리나,그의 중얼거리 는 말에는, 뜻잇는 사람의 마 음을 울리는힘이 잇섯다。

『가난한것은 죄악이다』

그런한 말을 한마디 중얼거 려 봄다。

『가난한것은 죄악이다』

일 업시 가끔 생각난듯이 거 리우에 발걸음 멈추고는

도 별로 그들이 눈여겨 보는

酒의害

아이 … 아이 … 一日一子以上의量을 마시게되면 그以上의量이 … 習慣性이되어 … 그中毒으로 體內에 …

이것을防止하기에는 新陳代謝를 旺盛하게하고, 體內에 蓄積된 酒精을 體外로 排泄하는 外에 …若素(わかもと)는 新陳代謝를 旺盛하게하고, 消化, 吸收, 排泄等의 作用을 活潑하게 하는 故로, 飲酒等의 害를 防止하는데 必要합니다

그것이 酒精에 依하여 … 多의 研究者가 … 日本人의 體質에 適合하게 … 特殊微生物로 … 有名한 … 若素(わかもと)에는 脂肪、蛋白質、糖類、無機物、비타민A、B、D、E等의 人體必須의 榮養素를 含有하고 또한 日常食物中에 여러가지 榮養素를 消化吸收케하는 酵素까지도 含有해잇는故로 完全榮養食이 되는것입니다

完全榮養에依한 結核·胃腸病療法
★嚴重한食餌의制限은 도로혀病體의衰弱을招致

結核患者에는 蛋白食을 만히준다든가 或은 胃腸病者에는 不消化物을 避해라, 라고하는 注意는 一般으로 잘알려진바이지마는 病에따라서는

그病理、症狀이

다各各이므로 一括的으로 그러한 食餌上의 制限을 하면각금 큰錯誤가 나기쉽습니다

勿論 結核患者에는 蛋白質은 緊要한 榮養物이지마는 過行性患者가 이것을 多量으로 攝取하면 도리혀 發熱을 誘起합니다 또 胃腸病으로 말할지라도 一般으로 消化가조흔 죽은 무엇보다도 조흔榮養食으로 생각되지마는 慢性胃弱、胃下垂、胃擴張等에는 水分이만흔 죽은먹일수가업고또 즉 그것은 榮養價가 만치못한 故로 그때문에 胃를 一層無力케할 念慮가잇습니다

그런데 最近에는 榮養食에 對한 觀念이 非常히 進步되여서 結核患者는 勿論이지마는慢性胃腸病者인 경우에도 輕細한 一二의 榮養物을 만히 攝取하고 或은 禁하는 方法보다도 可及的여러가지 榮養物을

均等히攝取하는것이

최신 效果的이라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有名한 榮養學者마가리손博士가『完全榮養食』을 提唱하고잇는것도 이런意味로 興味가잇스며 또滋味잇는일로는 慢性胃腸病이 오래끄는것도原因은 오히려 胃腸보다도 或種의 榮養素의不足、또는 缺乏으로 오는일이 만타는것이 最近實驗되고 잇습니다

그리면 各種의榮養素를 遺漏업시 含有한 完全榮養素란어떤것인가하면 近來無類의 必要겟는 大自然의 … 물알고 또비타민의各種이 發見되여서부터는 完全榮養食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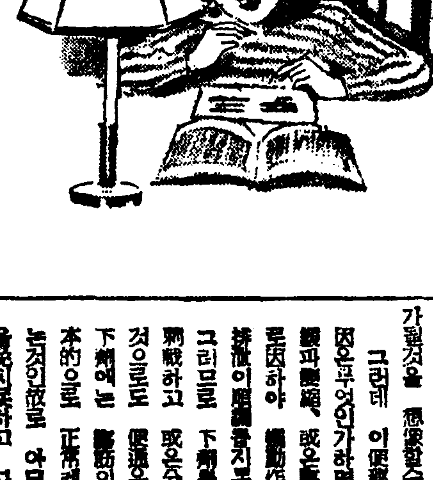
드는 榮養素의範圍가 非常히 擴大되고 따라서 特定한食品에依하야 完全榮養食을 求하는것은 全然不可能하게 되엿습니다 그런대 戰時에 適한 다고 저―世界大戰當時 極度의食糧難에 … 되엿습니다

完全榮養食에가까운 것을 發見하게되엿습니다

獨逸 … 有名 … 良好한 … 特殊微生物 …

頭腦의活動을鈍하게하는 常習便秘의害
工夫실혀하는兒童에注意

便秘하면 腦의 … 內에나쁜까스와 毒素가생겨서 腦에 여러가지 神經系統의活動에 나쁜影響을 주는것을 注意하지안흐면안됩니다



例를들면 어떤지며 영가호학한 少年敎養團體에서 保護少年十四名에 對하야 그便通狀態를 調査하고 上級하고 成績이엿고 根氣가업서지지 工夫하기가 실혀진다는等의

◇……症狀

은 便通이 一日에 한번식 規則的으로 되는者가 二人, 하로걸러 와二日걸러이다는者가 各一名式이며 그中에는 十日만에 或은 廿二日만에잇다는 者까지잇섯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가치 顔色이나뿌고 … 自暴自棄의 行動을 敢行하다는대 어것을 … 에는 거운타이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며 그것이 由해지며 … 症이되고 … 을 이르키게됩니다

이에對하야 先般發奇한 統計가發表되엿는대 그에依하면 某不良

◇……便秘

의害가 少年에 … 精神機能에 惡影響을 미치고 怠惰、自暴自棄를 一層助長하는 結果가 됨을 … 이 便秘가 되는 原因은 大部分의 腸粘膜의 분비 … 腸의 緊張 … 輕減 …

그러므로 下劑를 먹고 腸管을 刺戟하고 … 或은 分泌를 促하는것으로도 便通은 되지마는 下劑에는 習慣性 … 本的으로 正常케하는 效果는 업고 … 못할뿐아니라 … 가 목숨을 버리…

그런대 最近에는 …

◇……活性

酵素는 消化 … 이 藥中에 … 腸內의 有害細菌을 … 作用이 … 成分 …

그러므로 常習性便秘도 … 用하면 漸次快便을 보게될 … 腸內의 毒素와 그것이 비저내는 頭重, 倦怠, 不眠等의 症狀도 차차解消해지는것으로서 이 藥理야말로 若素(わかもと)가下劑가아니고 便秘의 原因的療法藥으로서 實用되는所以입니다

이若素(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는三百錠入、千錠入、粉末九瓦入二七〇瓦入等이1日分의五六錠(小兒에는三錠)의 … 하고잇습니다

또한 … 中華民國의 各地藥店에서도 販賣하고잇습니다

療養實話
炭鑛에서의過飮으로 肋膜炎과胃腸病에
(北海道) 常松愈太郎

나는해빗도못보는 炭鑛가 나쁜땅속에서 勞働하는 坑夫입니다 昭和十二年十一月過勞가原因이 되여 … 하고 元氣가업고 또 食慾이업서서 무엇을먹는지 맛이업스므로 會社病院의 診察을바든結果 肋膜과胃腸病이라고診斷을 바다서 實로 … 습니다 그런데남이지날을 따라조아지기는 커녕점점 漸次어워여온으로 …

마침 … 에서 胃腸病과肋膜에 『若素わかもと』가 … 을 보고 속는셈치고 … 나다 … 이 … 食慾이아주 좋고 … 元氣가 잇게되엿습니다

… かもと … 와 … 조아지기 … 하고잇습니다

서울 … 그런 … 十一月 … 二年 …

明治座
5月6日ヨリ10日マデ上映番組時間表
松竹キネマ
松竹大船 佐佐木康監督 桑野・高杉・高峰・夏川・主演
愛の光 11.00―12.13 2.13―3.26 5.24―6.37
ニュース映畵 12.16―12.35 3.30―3.49 7.00―7.19
中華映畵社製作 監督 方沛霖
漢江 12.38―1.44 3.52―4.58 7.23―8.29
ニュース映畵漫畵 1.49―2.08 5.01―5.20 8.34―8.53

第一劇場
松竹大船超特作
女醫絹代先生
主演 田中絹代 佐分利信 東山光子 大山健二
東日大每ニユース
現代名作 沈清
監督 野村浩將氏
主演 (金素英 石金星 金一海) 尹蓬春 朴宗元 申銀鳳

沈清
五月九日낮부터三日間大公演
毎日晝夜二回公演
朝鮮映畵部製作
紀新時代 朝鮮語全發聲日本版
監督 安夕影氏
撮影 李基世氏
特別料金 階上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沈淸週間의料金과時間이變更합니다
三回七時半 一回十一時半、二回二時半

謝恩 御招待
서대문밖간장 … 독본 … 당의 …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入口
電話光 三三四 一九四 一〇七 番

明治座 東洋劇場 御招待

東洋劇場
靑春座中央公演最終週間
五月七日밤부터十三日밤까지
◆夜間劇團◆
『빗못본地平線』三幕
『危機一髮』一幕二場
第一日(十四日) 第二日(十五日) 第三日(十六日)
十四日밤부터十六日밤까지三日間
朝鮮演劇研究會創立五周年記念
◆十九日밤부터◆
劇團 … 公演
每夜七時十分開演

東洋劇場
◆東洋劇場◆
興行中上大小十錢
五月十日낮부터三日間
『곤짠이의王者』
『龍虎旗隊』
『涯しなき航路』
『はたかの女』
中野英治、山縣直代主演
大日本 … 久松三津枝主演

學芸

現代學生風紀論
—그 社會的根據와 變遷相— (四)
朴致祐

어떠튼 風紀의 問題가 이러한데서부터 한층 重大性으로선 判斷해 내기 어려움을 아래와가튼

諸 問題 即—이사람을 배우는것이 罰이것이 罰 道理에도 不適하고 風紀에 關한限 어른을 배우는것이 도리어 惡으로 돌리고 罰과恥辱을받게 될뿐만 아니라 恥辱을주며 罰을 내리는者가 누구냐하면 成年者라는 이가른矛盾이 생기게 되는것이다。진실로 어른된者의 橫暴라면 橫暴이고 破廉恥라면 破廉恥일것이나, 그러나 單純한 橫暴 破廉恥가아니라는것은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이때문에 받는 良心의 苛責이 意識化되여 잇지안타는 點만을 가지고도 짐작할수 잇는것이다。그러면 대체 무엇이 어른된者로하야금 이가른

惡 趣味에 無關心할수잇게하는가? 여기에대해서 우리는 다음과가티 說明하는수밧게는 업슬것이다。即、未成人따라서 學生의 風紀紊亂을 責하는者는 父兄이 아니라 社會인것이며、敎師가 아니라 社會인것이다—라고。父兄이나 敎師는 그 個人의 資格에서가 아니라 社會의 代辯者 代理人의 資格에서 그들의 子女學生徒를 責하고잇는것이다。

『내』가『너』에게—가아니라 嚴密히는『社會가 나로하여금너에게』—가 아니면 아니된다。이것은

眞 實로 注目할만한 主語의 轉換이다。이가른轉換은 何必風紀에關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倫理的命令에서한결가티 볼수잇는秘密이여서『너히들 중에 죄업는자가 돌로이녀인을치라』—라는 예수가 남겨준 千秋의 聖言이잇음에도不拘하고 二千年을 經過한 오늘에이르기까지 如前히 罪人이罪人을 審判하고잇는것이며 또그리케함으로서 비로소社會의秩序가無事히 維持되여가고 잇다는것은 行爲에대한 評價에 잇서서 언제나 이가른 巧妙한主語의轉換이 움지기고 잇기때문인것이다。筆者만이 남의罪를 非難할수잇는게아니다。누구나가 다—남의

行 爲의 잘못을 꾸짓으며 비우스며 責할수잇는것이다。『倫理的命令에 잇서서의 主語轉換의魔術性』—나는 이事實을 이리케 부르고십다。이리한 魔術性이 잇기때문에 成人의未成人에대한 破廉恥도 救恕을밧게되는것이며 未成人의 成人에대한 不平不滿도 자연解消되는것이다。殷鑑은 먼곳에잇지아니다 日前 府民館에서 未成年者飮酒喫煙禁止法 實施祝賀會에 參集한 數千의會員(그중은 全部 成人이엿엇다)은『社會』를 위하여『國民保健』의 向上을위하야 歷訪의談을 表하고 잇는것이다。한개의 社會는 그自體의 發展과 强化를 위하여서 優秀有能한 多數의 成員을 必要로 하는것이며 이必要를

充 當시키기 위하여서는 少年 時에 保生層에게 여러가지의 特權과 制約을 아울러 賦與하여 保護을주며 優待하는 한편 또 情熱의 恣意的인 破壞를 拘束하는것이다。이가튼 重大한 任務를 社會를 代身하야 行使하는役이 곳 처음에는 父兄 다음에는 敎員이엿든것이다。그러든것이 이제다시 敎員의 손을 떠나려하고잇다。

鄕土文化를찾어서 第三 蔚珍篇 班 ⑮

蔚珍의三絶奇
蔚…珍…行—(六)

崔益翰

蔚珍三絶奇란것은 古來 或은 一般의評定이아니라 이것은 筆者가 讀者에게 紹介하려는 方便的題目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나 事實에잇서선압에말할 三絶奇는 蔚珍의三絶奇라것보담 天下의三絶奇라해도 過言이아닐것이다。

三絶奇는 무어이냐하면 一日聖留窟、二日酒泉臺、三日南大門이다

聖留窟

邑南十七里許九山里北外의越東朝留峰(白蓮山)下에 奇絶異絶한 一石窟이잇스니 聖留窟或稱仙遊窟인데 古名은 撑天窟이다 守山川은 그압에 孤灣을짓고 石壁은 그우에 削立해잇다。

詭異하게말하면 神仙이노는 天藏地秘한石窟이라하겟지만科學的으로말하면 石灰水의岩石溶解로서 된것이다 窟中에는 石筍과鐘乳石이 多數히잇다 窟內는 幽暗하야 燭炬의빗출빌리지안흐면 드러가探險할수업다 그地方人士의探險談을 드러보면 一種別世界의感이잇고 半里許以上은危險하야 더드러가기 極難하다한다 朝鮮후守敎의窟中記는 참으로 재미잇는글이다。

諺傳에 此窟은 平海梁川窟과相通되엿는데 옛날어느老人이 聖留窟 드러간지三年만에 白狗아지가되야 梁川窟로 나왓다한다。

窟前春水漲苔磯
山有岩花映落暉
更有一般淸意味
夜深巢鶴竊人飛
梅月堂金時習詩

酒泉臺

酒泉臺는 邑南十里許谷嚴尾村에잇다 傳言에依하면 野中에橫亘한 長蛇形가튼 一條山이 水陽中斷된故로 古名은 水穿臺라 하얏는데 仁祖戊辰에 萬休任有後가 玆郷에來寓하야 水穿臺를酒泉臺로改名하얏다。石山孤聳이 서로映帶하며 古松幽花가 鹿岸에交錯하며 左右上下에 酒煙한村落이 烟火를點綴하야 眞所謂別有天地非人間이同時에 一郡勝景의眉目이라할수잇다。

窟의直傍南村에는 南氏門戶가 櫛比하고 窟의西方 川前村에는 朱陳兩氏가 世居하야 別名朱陳村이다 長友一仙張植君의衛廬도 이에잇고 家兄杏山翁도 山水의勝絶을 사랑하야 十數年前 여기 卜居하얏다

開花洞 도러서서
杏花天 바라보니
朱陳村 버러잇고
桃花水 흘르노나
漁舟子 내아니것만
武陵을 자젓서라

南大門

南大門은 天然의石門으로 天下에 다시짝이업는絶勝이다 어디나 하면나의故里인 北面縣谷의 搾門이다

俗稱南大門하는데 門도南向이러니와 通路道路가 그門으로 나게되엿다。

縣谷의 一溪澗인 후리ㅅ개(後里浦)山麓이 海上에 東向峙立하고 그미테 지石臺가 南北으로 一直貫穿되엿는데 高의高는 四五丈이오 廣은 五六尺가량이오 入口出口의長은 約百尺인데 左右門壁은 鑿尺을 가진人工으로서도 다시더할수업게 削立端整하야 分毫의差도 업게되엿다。

溪上은 元來 아모通路도업섯든것인데 後來 山上으로부터 轉落된岩石이 上口에 橫載히 더피고 끼여서 天然한 石橋를 이루엇스나 아직 溪도整이 確認보인다。

筆者는 少兒時에 夏節이면 納凉音取하야 항상 이石門에 가서 살다시피하엿다 그리고 이石門에對한 記文詩句가 相當히 만핫스나 지금은 하나도 記憶되지안는다 今番에卒作인 石門歌一篇은 亦是長篇인關係로 記載지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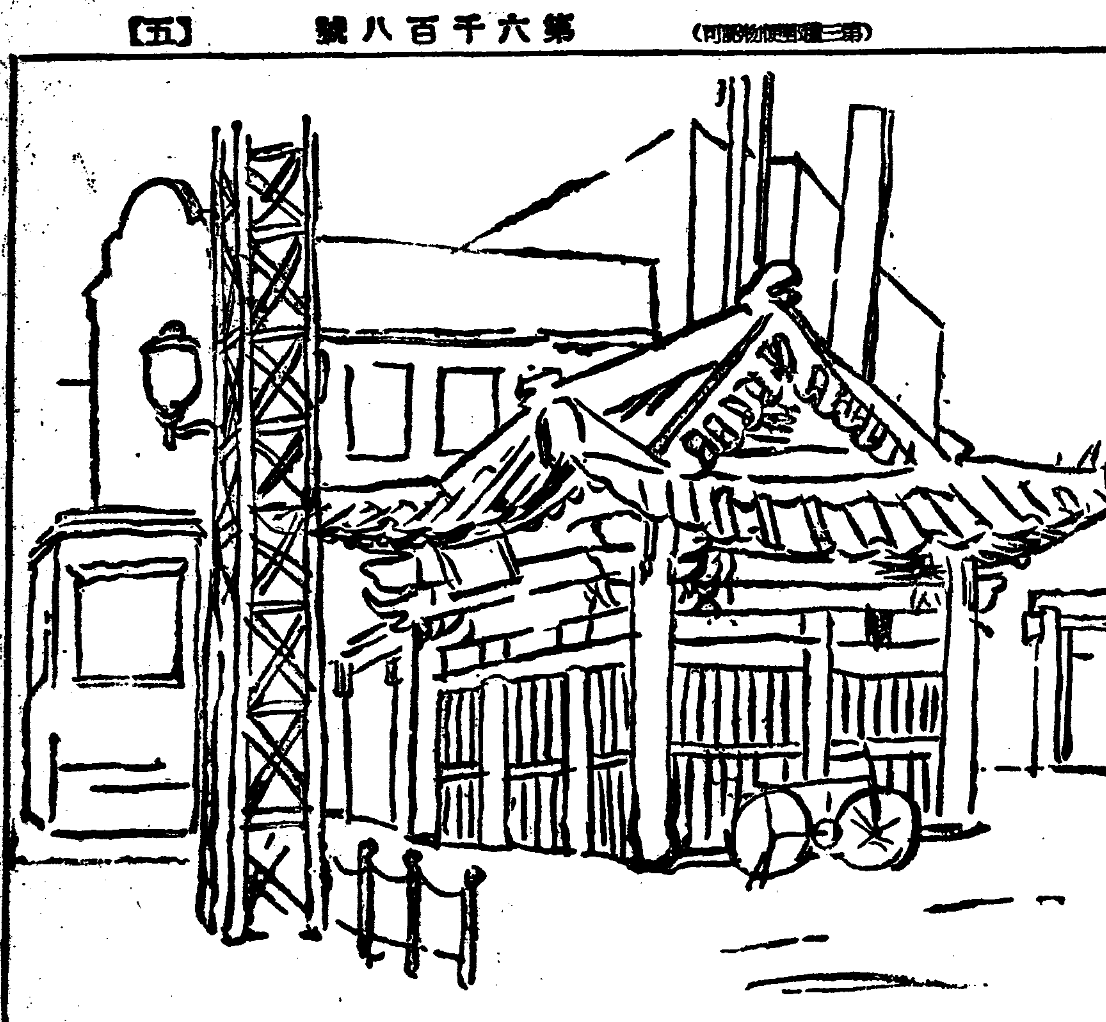
蔚珍望洋亭[illegible]

西行日記
—三墓와雙楹塚— (6)
林學洙

×月×日

오늘이 내旅行日程의 最後의 날이다。아침에 일즉일어나 行具를 챙기라니 무어인지 섭섭하고 또언제나 여기올수잇슬까 하는생각에 轉變하는 世事가센티멘탈하다。아침도 먹은둥만둥 실비나리는길을거러 停車場으로 나왓다 商人과 學生들로 하야 待合室은 어수선하얏다。

二十分後 眞池洞에 나렷슬때는 아직 비가나리더니 기대리는동안에 개엿다 열쇠와 案內하는少年을 불처줌으로 東北으로 것기 五里 山麓에 大墳이 소사잇다 방으량길로 거러올라 墳門옆에니 두머리의 배암이업디여 궁둥거려 웃슥하얏다 보니 十餘층의 돌階段을 나려地下에 깜깜한前室 땅바닥에는군데군데 빗물이괴엿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얼켯다 미든 흙바닥이라 축축하고 壁은 모두 진흙우에 白土를칠하고 그우에다그림을 그렷슴으로 몹시剝落하야 다만彩色의形跡만 남어잇고 여기저기 물이새며 심한곳은 세멘트로발라 아주 장님이 되여버렷다。現在所에서 어둔 초다섯자루에 모조리 불을켜고 내가준비하여온 懷中電燈을 켜고 光線의屈折을 利用하얏스나 오히려 희미한속에서바라보니 東壁은 거진 물것이업고 北壁의 玄室로 통하는 入口우에 간신히 樓閣이보이며 南壁에서 西壁으로 걸치 구름과唐草의 紋樣 變形紋이 잇고 그우에 玻璃가튼 커다란 蓮華가잇스며 그사이ㅅ틈우에 樓閣이잇서 긴廻廊이 비교적 선명히 남어잇되 그 措置는 보통 唐畫에서 보는것갓다。[illegible] 돌라가니 [illegible] 라 가득히 [illegible] 겨우드러운 [illegible] 시하얀[illegible] 不便하기 짝이업다。[illegible] 겨히 지어저 아무것도 [illegible] 수업고 [illegible] 하야진것만을 [illegible] 여기서 탐이잇다하며 少年이 손가락으로 가라친다。[illegible] 光을[illegible] 파면 [illegible]! 가[illegible] 진눈、손꼿 [illegible] 도 잇습다 귀에[illegible] 보이지안는다。[illegible] 다지여저 여기저기 꼿 [illegible] 人의 얼굴이 푸른소매와 [illegible] 자락만이 보힌다。아마 [illegible] 나 아니면 긴옷자락을 나비끼는 [illegible]의 무슨[illegible]이나 行列인듯하나 알수업다。[illegible] 와 마찬가지다。



長安今古奇觀……⑤

人定閣
鄭芝溶

허둥지둥 새문턱을 닥어드니 마침 閉門時刻이라큰 소문이 다치노라 요란한 소리에 큰쇠가 덜크덩 잠기엿다。

겨우겨우 城안에 들어슨 一行은 살앗듯 마음이 노히고 다행하엿다 거름이한쭉에 줄어 徐徐히 자라리 힘어지 흘려저 결리는것이엿다

전ㅅ자리 깡그리 다친거리에 유진동 사방등이 번거롭히 지나가고 미구에슬라군이 돌때가 되엿다。

교전네 등몰 흘리워 알세우고 급한 행차를숙어가는교군도 간혹 보히나 그외에 부녀자의 행색이란 어아닐밤에 일체 보힐리 업섯다

새대궐 압까지 압서거니 뒤서거니하야 밝혔걸으며 어야기하든 자기에 行人을 살필배 업섯스니 어느 골목에서 나와다고 바로 일홀수도 업는 젊은 장옷자리가 몰푹 아플 서서 가로거치는것이엿다。

도담직한 키에 몸맵시가 어여지 안흐려니와 가벼운 갓신에 옴기는 거름제가 밤에 보아도 아리따운 젊은 여자임에 틀림업서 별안간 마음들이 설레기 비롯하엿다

그러나 아페 세운 기집아 하나 업고 동울 하나 딸리지 아녓스니 저욱어과여쩐은 일이 아닐수도 업섯다。

그러하고보니 한창 잘란풀 숨겨하는 젊은 一行은 밧작뒤를 다어서서 히힉질여 시작된것이엿다

아닌밤에 무슨 급한 병자가 초라한 살림에 생기여 약화제를 들고 나선여인이 아닌바에야 예사 여염집 여자로서 밤출입이잇슬수 잇는 노릇이나랍이다

그만한 히학질 작란이야 바를만하지아니한가。

그러나 그여인은 소홀도 불러다든지 당황하는 졸이 업시 거름을 사븐사븐 혼지안코 걸어가는 양이 더욱 妖艶하야 一行의 好奇心을 더욱 요란케하는것이엿다。

이상스러운 노릇이、아무리 빨리 쪼차가야 그 여인은 쪼차가는 一行의 손어 장옷자락에 다흘거리에서 서서가는것이 아니엿다 그러타고 신ㅅ뒤축이 급시급시 밟힐듯한 사이에서더 압서 가는것도 아니엿다。갓점이 날 노룻이아니러가 아무리 쪼차가야 잡을도리가 업섯다。

이리하여 승강이를 하며 쪼차가는것이 황토마루를지나 색전아플 나섯스나 역시 잡히지 아니하고 중추와 소매가 바람에 부으르고소 장옷 세자락에서 쉬스소리가 날지경이엿스나 지척에 보든꼬리를 꺼지못하는 까닭을 몰을 일이라 인제는일개 만만히 볼만한 여자의 발을 흉키잡고야 만다는니보담은 三四人이나 되는엽은 사내자식들의惡氣와 匪戱으로서도 거저더퍼둘 일이 아니엿다。

선날 식님이 때처럼 약륙이 잔뜩 올랏다。

신이 금시금시 밟힐는지몰라 힐긋하면서도 몸이 잡히지 아니하니 웬일인가。

여자는 한결가티 태연히 사븐사븐 가는것에 지나지 안햇다。

一行들의 엽은 옷으로 말하면 꼬치지도 오래고 놓음이 한창 어울리어가는四月초승이라 갓다늘어입고 나선모시옷 아니면 가는 베복이엿고 신으로 둘지라도 산뜻한 마침 마른신이나 발편한 누리바닥 고혼 메투리엿슴으로 걸어가기는 재러 날릐라도 갈쉐인대 점잔흔 갓모자가 모조리 뒤로 발딱 제켜지도록 여자의 거름을 딸치 못한다는 까닭을 알수가 업다。

인제는 마지막 기를 써서 쪼칫것이 종로 인경전 바로아페 까지 와닷것이다。

어경전 바로뒤 행랑뒤ㅅ골로 여자는 슬적 동울돌치자 한사람의 손이 여자의 장옷소매에 다치마자여자가 회홋 도라보자 달밤에 보는 玉과가튼 흰얼굴에 찬찬하게도 흰 앞니두개가 길기가 땅바닥까지닷는것이 아니엿든가!오악! 소리와 함께 一行은 모두 너머지자 여자는 인경전에 되고말엇다。

于正인경이 땡!한번울엿다 그소리를 이어 내밀내밀 내밀하든 餘音이 실곳하게도 무어인지 문리이 꾸짓는것가탓다。

一行은 꽉기친 개고리 펴지듯 모두 감으러켜 바닥에 쓰러젓스니 사내자식이 아무리 놀라기로소니 그중에 하나쯤이야 아조 죽는수야 잇슨냐 말이다。이왕 쓰러지는 바에야 鋼閣 옆살에 허리를 부치고 섯흔 두번 우는 인경소리를 돌오며 내처 잡이 들어던것이다。

얼마쯤이나 잣던지 아롱푸세 정신이 돌며 눈이 뜨이고 보니냅이 호어히밝어오는데 能灑치는 솔을 울수가업다 자ㅣ 그러니까 간밤일이그것이 귀신장이 雜鬼임지라도 인경소리를 꿈엘지라도 듯기는 들엇다。

寒暖찮고 열어서며 곰곰히 생각하야보아야 엽녀을때 서울 올라온이후 사실로 인경소리를 들어본일이 잇든상심지 아라。

허니까 꿈에라도 한번을어봄 셈인가?

우리 年紀되시는 벗님네들! 누구나 서울 鍾路 연경소리 들어본이 잇소?

너를 바로 보고도
네소리 듯지 못하니
그를 설워하노라。

(鄭玄雄 畫)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

愛憎道 (十二)
鄭飛石 作　崔根培 畫

「아 깐놈이가 아직 못갓나!」

노선달이 얄궂어하자、종섭은 득보의 아래위를 훌터보더니 귀찮어오로

「곳쓰세인데요!」

「금방 급헌데요!」

「그러내고 급허기만 하다구해서야 알수잇소?」

거든 그러니까 어서 좀봐주! 가봐라!」

그제서 종섭은 깨닷고

「아 그래요!」

하기가 바쁘게 왕진가방을 득보에게 들리고나선다。종섭이가 박그로 나가려는데

「최선생! 얼른 댕겨오슈! 내긴

종섭은 사실인즉득보의채단새로 보아、병울보아순댓자 약값을바돌수잇슬까 의심이 먼저 떠올라가기를 덜조하했다 그런내색을 노선달이 눈치채자

『아니 최선생! 어서 가봐주라구 저사람이 알콜다는데가 아까 내가말하던 그여자의애히 만날일이 좋앗스니……』

하고 노선달을 위는올 질금해 보인다。

종섭이 다다럿슬땐 깐놈은벌써 들석들석 탁충불추고 잇섯다。그런줄도 모르고 홍매는깐놈을보삽고

『깐놈아! 깐놈아! 대답 좀 허

하고 오르시지 목소리도 브르지엇다。

종섭은 깐놈을보자 벌써 어제할드리가 업섯다。깐놈의모습을보는 순간 종섭은 이것이 틀림없는 제아들이란걸 깨닷엇고 그와동시에 아버지로서 아픔의 죽엄을 목도하는 진정한 슬픔이소쿠처올라 참을수사라도 노[illegible]하고 깐놈의손만을 붓잡는다 순간 홍매는 깐놈에게 손을대는것이 종섭인줄을 알자 버라가티 눈에도살이 올라붙이나게 종섭의손을 뿌리처버리고 깐놈을와락 끄러 버게처럼 모질게[illegible] 품어안더니 휘닥이러서며

「가! 가라! 어터운놈아! 가거라 가!」

아들바로 고함을 지른다。득보는 눈이둥해진다。

「잔말말구 아기를 내려놔요!」

종섭은 깐놈이가 제아들이엿다고알자 갑자기 어떤 송유권에 대한 권리를 느끼고 호기잇게 명령하며 뻑니 이러섯다。

홍매는 그거말에 쏠어질듯 뒤로물러서며

「실허실허! 종생가튼놈에게 뉘가 깐놈을 맛긴다든! 이게네 아들이줄아냐?」

오스러저라고 깐놈을꺼안으며 발악을 쓴다。깐놈은 엄마품안에서 피둥피둥 어깨춤을 추더니 차차로 오금이 구더진다

「아기를 내려줘요! 이 못된히게나?」

종섭은 와락달겨들어 깐놈을빼앗으려다 그순간 홍매는 눈이 뻥뻥해지며 종섭을바라보더니별안간

「의아악—」

칼날가튼 고함을지르고나서 아기를 안은채 밀러 박그로 뛰여나가며

『하하하 깐놈아! 우리 다슬기로가잘자! 종섭이란놈 죽일놈! 깐놈아 넌 내아들이란다 하하하 깐놈아 네겐 애비가 업단다 득보가 네애비란다。종섭이란놈 하하하 깐놈아 애비해선 뭐허니! 엄마면 고만이지……깐놈아! 엄마일녀갈만히 사슬나! 깐놈아 다슬기로 가자다슬기로! 하하하 득보두 간단다……』

홍매는 시거진깐놈을 껴안은채 머리채야 풀어저가지고 허담불레 마당을 연자말처럼 빙빙 돈다。홍매는미친것이엇다。득보는 속수무책으로 멍하니바라만보다

종섭은 이자리에 더오래잇다간 필시 창피를볼것을깨닷자 가방을 생큼들고 빼려한다

『야이! 어딜가?』

가만안저잇던 득보는 문득종섭의팔을 웅켜잡는다。

『당신은 무슨상판야?』

종섭은 득보를 노려본다。

『무슨상판이건 저애를 살려놔라!』

『홍 당신은저애가 뉘앤줄알구?…내애야 내애! 내애주인데 당신은 무슨상판인고?』

『이놈아! 언제는 감기들려서 못하봐수겟다던놈이 인젠 내아들이라? 어느악지가리서그런 뻔뻔스런 말이 술술 나오니?』

『그땐 내아들인줄 몰랏서 그랫지!』

하고 종섭은 아차 말실수엿구나햇다。

그말에 득보는 분통이 터젓다。

『어 때려죽일놈! 네깨끼만소중하구 남의자식은 소중치안흐냐? 이죽일놈』

하기가 바쁘게 득보의 주먹은 종섭의면상에서 정확 번개불이 튀엿다。

『아쿠!』

종섭은 쓰러젓다。득보는 두번재의 팔을 장긋 뒤로 재엇다

팍게서는 홍매가

『하하하 깐놈아! 넌 내아들이다。일녀갈 만히 사주마! 우리 득보테리구 다슬기로가살자! 웅 깐놈아 으흐흐흐호 깐놈아! 다슬기로가자! 다슬기로 가살자!』

하고 홍매는 깐놈을안은채 호느껴울면서 허둥지둥 사립문박그로 달려며 나가는것이엇다

—

齒痛에 꼿 듯는
スグキク
수治水
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全國藥店에잇슴

痒운 皮膚病에 アスター (아스타ー)
가려워서못견듸는
버짐、무좀
손도댈수업는
태독、읍남습진
深達性이强한
アスター가第一
皮膚病이잘엔낫는것은病菌이皮下를펄처뻐더가는까닭으로・强한深達殺菌性이꼭必要합니다
アスター는、揮發性의水藥과달라、全然無刺戟하고、優秀한制痒力과深達性殺菌力이잇고効力이오래가는芳香性크림으로서
조금도刺戟性업고
爽快허가려움을업새고
흉한자리가나지안코
皮下菌을殺滅해서速히낫는
全國的으로好評인
살결을守護하는常備藥!
主効
▲버짐 ▲쇠버짐
▲무좀 ▲가려움
▲진무른데 ▲읍낭습진
▲태독 ▲땀띠
▲옴 ▲부름
價 三十五錢 一圓五十錢
藥店百貨店에잇슴
本舖 大阪 東京 丹平商會

淋疾이면곳 루ー베리

리베ー루의特徵
一、[illegible]粘膜으로의吸收가速하고服藥卽時尿는醫色으로變하고强한리베ー루效[illegible]放散하야排出하고[illegible]速히快感을感覺함
一、尿道를侵害하고잇는[illegible]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殺菌作尿로말미아마體外로洗出하고痛症을消散함
一、藥効를아는대는리베ー루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바더專門家에게顯微鏡으로比較檢查를해보게하는것이가장速한길이며服藥後徽菌의死滅해가는現狀을볼수가잇슴
危險한療法은避하라
素人의尿道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잔손이걸리고도리혀病을더하게하는危險이만코、徽菌을도로혀속으로드러보내서膀胱加答兒나睪丸炎이되든지甚하면刺戟을주므로血尿까지보게되야苦生하는이가만습니다
리베ー루는副作用이업고언제어데서나內服할수잇서서安全히治療되는實例는만습니다
서실때는반드시特製 리베ー루라고指定해주십시요萬一品切할時는本舖에서直送함
價 五日分 一圓五十錢 七日半分 [illegible] 十三日分 [illegible]
○各藥店에賣販함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藥所 振替大阪三六〇番

産業

東向大東乾燥면 胴折米가最少
水原農試 和田氏發表

目下問題되는 朝鮮米의 胴折에 對하야 水原農事試驗場의 和田技師는 穀物檢査關係者會에서 試驗結果를 發表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刈取期와 胴折關係는 一言而蔽之하면 適期早刈가 必要하나 籾坊主 多摩錦 穀良都의三種은 出穗後 三十三日乃至四十四日사이에 刈取한것이 가장 折이적다 다음乾燥關係를 보면 東乾은 三日째에二五% 胴折을 發生하고 東乾은 二日午으로二八% 乾은 一日餘로 三〇%의 胴折을 發生한다 大東乾은 十日째에 겨우 二五%의 胴折을 보이여 第一成績이조타 그러고 大東乾燥할 境遇에는 東向이第一胴折이 적으나 乾燥시키는데 時日을 要하므로 東向으로하고 乾燥시키는것이 適當하다 要컨대 東向으로한 大東乾이 가장 胴折率이 적으렷이다

大邱朝鮮藥酒會社 新役員決定

【慶北支社發】大邱朝鮮藥酒株式會社에서는 八日午前十時부터同社樓上에서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役員選擧를 行하엿는데 左記와如히決定되엿다

▲新役員
社長 徐丙和
取締役 柳基龍
〃 崔常健
〃 原又五郎
〃 原衛男
〃 安炳圭
〃 鄭鄭雲
〃 李相岳
監事 鄭雲用
〃 阿南忠夫

鎭南浦苹果 北支에서大好評

【鎭南浦】鎭南浦産業組合에서今春滿洲와 關東州 北支方面으로輸出한 苹果는 七千箱子에 達한다는바 當業者實受取金은 丸A印二圓九十錢 丸B印二圓五十四錢 丸C印二圓으로 業者間에 大好評을 밧고잇는니만치 北支向 鎭南浦苹果의 將來는 매우期待된다고한다

全北繩叺會社 叺飢饉緩和奬勵
道內叺生産單一統制

【全北支社發】全鮮的으로優秀한 叺生産地인 全北道에서는 昨秋以來 穀用叺 肥料叺等의飢饉으로因하야 農家米穀關係者들은勿論 一般業者들의 悲鳴은 말할수업는形便으로 出荷不可能한狀態에빠지고잇섯는데 近間總督府로부터 四斗叺三斗叺의 穀用叺大量生産配當을 道當局에 通牒하여오게되여 全北叺會社가이에對한供給을 맛게되는同時에 道當局에서는 오는十日부터 十四日間을 生産强調週間으로 定하고道內各關係當局者를 督勵하야叺機械臺所持者에 實情을說明하고機叺에對한配當枚數를 製織하도록 各郡當局에 各各通牒指示한바가잇섯고 더욱이 週間中에는 道幹部各郡面職員이 總出勤하야大督勵行脚을 하게되엿는데 이叺生産週間에對하야 各郡及全北叺會社에서는 一般生産業者들에게 多額의生産資本을 貸附하야原料代價配給을 手配하고 其他督勵方法을講究하야 非常한緊張을가지고 努力中이다 어제 同會社 笠松專務에게叺飢饉緩和에對한 督勵方法에 對한抱負를 들어보면다음과가티말하엿다

▲笠松專務談▲ 全北叺會社는 五月一日부터 穀用叺을取扱하게 되엿는데 叺供給의配當까지 맛게되여 手持品이全無한이때 一般的配給을 엇더케調整할가하는것이 第一憂慮되는問題로 [illegible] 하고 必要에應하야 供給할수잇도록 準備하지안흐면 안될것이나地方의現實的需用關係를 全然度外視할수업는 形便으로 困難한 立場에잇스나 全力을다하야 手持品을가지고잇는者에게 當局要求하고有無相通하도록 斡旋에努力하고잇습니다

弊社는 總督府及道當局의 政策에 順應하는同時에 現下叺界의實情에鑑하야 本道內의叺統制單一機關으로 이번結成하게되엿인데 現下의叺飢饉을 可及的으로 速히解消하기를 目標로하야 原料藁資金供給 [illegible]金等을貸附하야 生産品의便宜를 圖謀하는同時에 都當局共[illegible]關係當業者를파 緊密한聯絡을 가지고 生産增加와 需給圓滑을 期함으로써 生産者의不安 需用者의品不足을 [illegible] 다 三月以後需用叺의供給이 圓滑하야 相當量價가一定하고 머구나 [illegible] 新叺安價로서配給하게되어 生産消費兩者間의 利益이 多大하게되엿것은 當局의指導가 適當하야 叺統制의 實績을如實히反映하는것으로 全鮮叺關係各方面으로부터 模範的統制라고 [illegible]밧고잇는形便으로 이제本道가 얼마나 穀用叺增産에 注力하고잇는가를 알기爲하야 各道와比較하여보면 다음과가티 고말한다

一月以後四月上旬(各道生産數量)

道名	穀用叺	肥料叺
全北	[illegible]	[illegible]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金聯共販斡旋高
比前年同期廿四倍增大
新穀以來半年間實績

金融組合聯合會의 客月末現在 各種農産物共同販賣斡旋高는 昨年十一月以降 總累計에 잇서서 一千二百十六萬七千十五圓에達하야 前年同期에比해서 實로二十四倍나 增大하엿다 그리고 斡旋二年度에드러간 正租의取扱高는其 趣旨徹底와 殖産契의 增設擴充에依하야 飛躍的增加를 示하고 其金額九百六十八萬二千五百七十圓에 達하야 全體의約八割을占하는 好成績을내고잇다 其內譯은 如左하다

	數量	金額圓
正租	[illegible]叺	[illegible]
白米	[illegible]石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小麥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木炭	[illegible]俵	[illegible]
麻布	[illegible]疋	[illegible]
朝鮮紙	[illegible]枚	[illegible]
其他와	—	
合計		[illegible]

陳列窓裝飾 競技大會所感 ③
平南支社 方建斗記

前回까지에 一般的으로 陳列窓裝飾에 必要한條件 即注意할것 色彩의調和를어더야 할것 陳列卽商品의 配合과 配列이整齊되여야 할것等에 對하야 簡單한 說明을試하엿다。다음夜間照明如何에 잇는것이다 照明의 照明如何가 그都市文化의 尺度가된다고하는니만치 照明이잘되여야 그商店이 廣告도 잘되며 陳列한 商品의形、色彩、質等을 華客에게 容易하게 뵈일수잇는에必要한照明에對하야 簡單이記述코저한다

四、照明

陳列窓裝飾에 夜間華客의 注意가 集中되고 안되은 오로지 照明如何에 [illegible] 것이다。[illegible] 바리야 할것이며 [illegible] 氣의技術的專門家에 相議하야 設計함에 가장 適當할것을생각한다 그러나 簡單어말하면 반드시照明을 [illegible]

▲照明의効果
A、注意力을增加하고 商品販賣의最高能率을發揮한다
B、商品의 眞價를發揮하야 華客에게人氣를어들수잇다
C、華客이나 店員의心을愉快하게하야 販賣能率을 增하게한다
D、照明에注意하지안는 商店을 排斥할수잇다
E、家賃을割下할수잇다 區域에 못된 商店은 繁華하게 照明이잘되면 어쨋던家賃이 高價인 가운데끼인집파는 販賣에잇서서 同率이된다고한다
F、商品材料의 價値와 色彩를充分히 알게하고 [illegible]商品의缺點을 鑑別시킬수잇다
G、商品을 迅速히 販賣하야 回轉率을 빠르게도한다

五、淸潔이할것

陳列品、硝子窓은 勿論陳列窓안은 구석구석까지 淸潔하지안으면 決코販賣効果를어들수업는것은 말할必要도 업는것이다 商品에 먼지가끼더잇던가 하여서는 決코購買心이생기지안는것이다

六、季節的일것

季節에따라 季節에 맛도록陳列하여야 할것이다 봄이면『하이킹』用商品을 其都市近郊의『하이킹코-스』說明書 寫眞等과가티 陳列한다던가 夏節이면 旅行用具 登山用具 海水浴用具等을 適當한 背景을만드러 陳列하도록하여야 할것이다 其他時事問題 最近의寫眞뉴-스가튼것을 가지 陳列하야 客의注意를 끄는것도方法의하나일것이다

七、說明書와定價表

商品의說明書와 定價表는 陳列에 絶大로 必要한것이다 商品은 말을하지못한다 이말못하는 商品을能히 말하게하는것은 說明書와定價表다 그럼으로 可及的鮮明히 읽기쉽게 單純한 字體로 써야한다

八、創作力

陳列窓裝飾도 嚴格히 말하면 商業美術의 最高의表現이다 即價値잇는創作이다。其價値에 잇서서 美術家가그리는 繪畵나 小說家가쓰는 小說과 差異가업다。그럼으로 創作力이 橫溢하야잇서야할것이다(寫眞은三等 當選된 常信堂商店)

滿洲北支는어떤곳 그産業經濟的價値如何 ④
産業視察團을보내기前에

北支經濟槪觀

一言而蔽之하면 北支一億萬民衆은 놀낼만치 疲弊困憊하엿는데 그原因은 여러가지가잇슬것이나 그中第一큰原因은 政治的缺陷이라할것이다 即北支는 如前히 封建的、原始的地方軍閥과 官僚의 重壓下에 苛酷한 重賣와 租稅徵發搾取밧는것이다 第二의原因은 經濟組織이 幼稚한것이라할것이다 即現在北支産業의中核이되고잇는 中世的〃길드〃制가 産業의發達을 阻止하고잇다 그우에 交通通信機關의 不備와貨幣度量衡制度의 紊亂不統一도 그經濟的發展에 障害가되는데一助가되엿다 그外에 自然的障害로서 黃河를 들지안흘수업다 每年 數千萬圓과 數千萬人을 삼키는 慘酷한 이黃河의 氾濫에 依한 天災와 低級의 農業技術等內部的原因도 經濟發展에 決定的障害가되는것이다。

그러나四十萬方哩의 廣大한地域과 一億에達하는 人口를擁한 北支五省은 그自然的條件과社會的條件에 不幸한가운대에잇스나 石炭 鐵 棉花 鹽等外에 無限하게 豐富한 資源을 擁하고잇슴으로 여기에 社會的政治的組織이 健全한 步調를 밟는다면 能히 克服할수잇슬것은 歷史가 가르처주는바이다 一部歷史家가 東洋社會의 特徵을 地理的條件에 置重하야 非難을맛게될만치 東洋社會의 歷史는 確實히 自然的地理的影響을 多分히 바든것만은 否定할수업다 特히 日滿 北支의 經濟圈이確立되면 急速한發展을 하게될것이다。이제 北支主要한 資源을 槪括的으로 說明하기로하자

第一、重工業資源

石炭 北支의 重要資源의 하나로 그埋藏量은 左表와 如히 千三百億噸이라하며 全支二千四百億噸의 太半을 占하엿는데 이를 日本內地 朝鮮 樺太의 總埋藏量百九十億噸에 比하면 얼마나 膨大한가를 推察할수잇다 北支五省中에도山西의 石炭이 가장 豐富한데特히 無煙炭資源은 全支那埋藏量의 八割以上을占하야 壓倒的優勢를 示하고잇다

北支石炭埋藏量(單位百萬噸)

	瀝靑炭	無煙炭	其他	計	百分率
山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綏遠(厚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如斯히 巨額의 埋藏量을가지고잇스면서 그開發이 遲遲不進함은 資本과 技術의不足, 租稅의過重及交通機關不備로 採炭한 [illegible] 出할수업는것이 그主되는 原因이다 最近 興中公司等에서 炭礦經營에 進出하는 同時에 送炭機關으로 石家莊—天津間을 連絡하는 滄石鐵道等을 目下計畫中이다

北支省別出炭量

	自一九三〇年至一九三四年平均		一九三五年度	
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綏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支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今日가장 盛히 採掘되고잇는것은 河北、山東으로 河北에서는 英國資本의 開灤炭만으로 五百萬噸內外를 産出하야 全支那의 第一位를占하고잇다 山東에는 大炭坑은적으나 合計四百五十萬噸을 産出한다는 狀況을呈하엿다(一九三六年調査) 以上과가티 北支五省의 出炭額은 一千四百萬噸의 多額에 達하야 全支의 六九%를占하는 狀態로그 將來가 極히期待된다

鐵 全支의 埋藏量一億乃至三億噸中、北支五省에서 一億三千萬噸을 占하며 察哈爾一省만하여도 九千萬噸을 産出하는데 日本資本에 依한 共同經營으로 計畫되고잇는 龍烟鐵鑛도 이察哈爾에잇다 本鐵鑛은 그含鐵量이 五十七%나 達한다는 優良鑛으로 埋藏量八千萬噸이라한다

北支各省鐵鑛埋藏量(單位千噸)

	埋藏量	北支內百分比	全支內百分比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山西、厚和(綏遠)의二省은不明)

現在北支의 全生産高는 大體로二十萬噸程度로 全支의一四%에不過하다 新式鐵山은 山西省의 保晋公司뿐이라한다

北支鐵鑛生産(一九三二年單位千噸)

	新式生産	土法生産	計
北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鹽 北支의 鹽生産은 豐富하야全支産鹽量三、六〇〇萬擔中 三〇%를占하는데 河北、山東의 沿海地로부터는海鹽、山西、厚和(綏遠)로 부터는 湖鹽을産出한다 湖鹽의 生産量은海鹽만못하나 東地需要는充分히應할수잇다고한다

北支鹽産量(單位千擔)

産地	自一九二九年至一九三三年平均	百分比	一九三三年
山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花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河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晋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口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支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支那에서는 鹽의 輸出을 禁하고잇스나 山東省에만 限하야 山東還附時 協定에 依하야 一個年最高二億五千斤、最低 一億斤의 輸出을 行하고잇다 日本의 鹽年需要額은 食用 十二億萬斤 工業用十五億萬斤 計二十七億萬斤에 達하는데 現在는 關東州 埃及 西弗利加 靑島等에서 輸入하고잇스나 將來는 輸入鹽(特히 工業用鹽으로서 長蘆鹽이 注目되며 靑島鹽은 大日本鹽業을 中心으로 山東鹽業公司를 設立하고 年額二十五萬噸에 達하는 輸入의 獨占을 企圖하고 長蘆鹽은 興中公司가 五十萬噸輸入을 企圖하고잇다

紙齡六千号祝 革新又周年

安州

安州郡雲谷面龍林里 三和金鑛 金浚相

安州郡雲谷面龍林里 梁鎭煥

雲谷郵便所 所長 兪鎭星

安州邑 天主敎 朴神文

安州邑 金龍奎

安州郡雲谷面龍伏里 李明根

大連

大連市西町九三番地 東洋企業合資會社 社長 金賢弼 事務所電話長四一〇四三一番 自宅電話長四一九五二七番

金周烈 大連市逢坂町九二 電話五、二〇一〇

大連市平和街四番地 鄭彦錫

朝鮮料理 榮館 尹冀成 大連市西町九九、一 電話(四)〇四〇八番

大連旅客貸切自動車組合 裵國敏 原籍 平安北道鐵山郡 現住 大連市仲町四八 電話四、九七一〇

朝鮮日報大連支局長 趙泳龍 本籍 咸州雲南面宮西里 現住 大連市霞町二〇〇 電話長四一〇五八三番

大連市元町九十四番地 崔昌善 電話四九七九一番

張昇鎭 現住所 大連市仲町一四五 本籍 平北鐵山郡東鹿面

德昌號 主 玄寬榮 綿絲布木 食料雜貨 海陸物産 委託販賣 大連市逢坂町四三番地 電話三一三七三〇番

大連市西町一一二番 長龍館

大連市逢坂町一〇八 趙熙緯

大連市西町一一七番地 朴根模 電話四一〇六一二番

大連市平和街三番地 崔俊昊

大連市逢坂町九六 邊見龍

大連市逢坂町九〇 朴信敬 電話五一一六九八番

大連市逢坂町九八 李載亨 電話五、二九五二

大連市吉野町七一 南相珪

大連市逢坂町二〇番地 朝鮮冷麵 千島 主 吳俊

大連市逢坂町一三四 朴信亨

大連市元町八〇番地 朝鮮料理 仁川館 主 孫行一

大連市元町九〇 金商鎬

大連市元町八八番地 金仁炳

大連市逢坂町一八番地 カフエーヒコウキ 主 金炳南

大連市逢坂町一〇四 大連館

大連市 無名氏

草溪

陜川郡雙冊面 面長 曺基準

草溪金融組合 組合長 車慶鉉

陜川郡草溪面牙幕里 李判甲

草溪面 面長 金燦模

赤中面上部里 金判道

赤中面 面長 吳鍾漢

陜川郡雙冊面 李民奎

碧潼

平北碧潼郡邑內 四同商會 金京龍 電話二二番

平北碧潼邑 碧潼醫院 公醫 金洛英 電話一六番

碧潼郡廳

平北 碧潼警察署

昌城郡大倉面倉西洞 倉西鑛山 楚山郡城西面舞鶴洞 舞鶴鑛山 碧潼郡加別面別場 百世鑛山 鑛業 金致祚

碧潼郡雲會面 鄭相辰

平北碧潼邑內 朝鮮料理 渭原館

平北碧潼郡雲時面 崔鵬植 木材業 李秩殷

平北碧潼郡 雲會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 城南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郵便局 職員一同

碧潼郵便局內 車昌一 金命洙 李成雨 朴時河 李聖烈

碧潼郡 加別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北 碧潼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邑內 林業 金炳淳

碧潼邑 碧潼酒造會社 安載南

碧潼東公立小學校 職員一同

碧潼邑 文得友

碧潼邑 張如綸

碧潼郡雲會面 有志 楊枝植

碧潼邑 鴨江商店 電話二三番

碧潼郡城南面 城東鑛山

碧潼邑 羅春和

碧潼郡松西面 面長 崔錫彦

碧潼郡碧潼面新市 公立尋常小學校

碧潼邑內 金雲洛

平北碧潼邑內 碧潼藥房 主 楊世龍 電話二二番

碧潼郡大平面上平 金基禎

雲會面 金秉默

加別市信望醫院 吉鳳洙

碧潼郡 公炳球

碧潼郡大平面 金澤櫓

碧潼邑 金明河

麗水

麗水邑東町 朝鮮料理 山月樓 李祥宇

麗水港 又華眼科醫院 院長 金相龍 電二四番

巨文島漁業組合

麗水邑東町 趙南燮

麗水邑議員 金景澤

麗水邑議員 南至星

麗水邑西町 趙廷鎭

麗水邑東町 崔丞柱

麗水邑西町 天一고무工場 金英俊

全羅南道議員 李又憲

麗水邑西町 嚴翼駿

麗水邑西町 京城洋靴店 申東植

麗水邑東町 李起采

麗水港東町 合名會社 鍾山商會 酒造場 電話一四六番

麗水邑西町 大同醫院 院長 韓鍾植

麗水郡 三山面 職員一同

麗水郡三山面德村里 秋陽

麗水郡三山面長村里 金用祜

麗水邑 鄭南泰

麗水邑西町 朴晶來

義興

義興産業組合

義興酒造株式會社

慶北道會議員 李光來

軍威郡義興面邑內洞 義興産業組合長 高應根

軍威郡義興面邑內洞 高慶壽

徐錫圭

軍威郡義興面邑內洞 朴英柱

錦山

南一面事務所 職員一同

基金六十萬圓모아 中等校를또設立

卅萬圓은鳳山高女財團에서卅萬圓은寄付로

晋州教育界에快報

【晋州】 기보 봉산고등여학교는 신이학급의 공립고등여학교로 되리라함은 기보한바이니와 이로나하야 현재의 약삼십만원 재단을 별도로 처분할 방책을 고려한결과 다시 약삼십만원(내선각십오만원)의 기부를어더 합계육십만원으로 모종의 중등교육기관을 신설할 운동을 전개할방향으로 근근 기성회가 조직되리라하는데 일반요망은 대부분 사범학교(師範學校)설치에잇다한다

新誕鳳山高女는 內鮮共學制로

【晋州】 진주사립봉산고등여학교(鳳山高女)를 공립화하는데대하야 여원의대부분이 동의한데대하야 동교를 공립화하는것과 동시에현재 매학년단 학급사년제를 매학년 세학급식삼이학급의 완전한고등여학교를 만들기로 한다고한다 그런데 수년전부터내지인측에서도 고등여학교 설치운동이잇서 연년도에는 그여시설할기운에잇던데 내지인측의 요망도잇서 결국진산고등여학교는 내선공학의 학교가 되리고한다

兒나코저兒屍를 못에꼬우고祈禱

【新泰仁】 지난칠일밤에 전북정읍군태인면 유정리(全北井邑郡泰仁面[illegible]里)에서는 어떤여자가 죽은어린아이를 못에 매어우며 잉태하기를 빌므로 일반동민들은 황당무계한 기도의미련에 대해서 폭소를행하거니와 그정보를접한경찰서에서는 서원수명을대동하고 현장에까지와서 그여자를 인치하는등 긔면에 무슨 범죄사실이나잇나해서 엄밀히조사하엿다는데 어제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기주소의 김명진(金明軾)의소실 윤구양(尹九良)(三二)은 만득으로아들낫는데 낫자마자바로죽어버리므로 그여자는 언뜻생각하기에 나무소실로서아해가업스면 자기입장이 곤란해서 그러햇든지 연명관계로다시 생산을할수잇을엇든지 예부터이라오르는 미신에 붓바처 전례업는기도의방법으로 세상사람의비웃음을 거리끼지안코 사번관을 에게 벌초의의심도바드며 그와가튼기도를 햇다고한다

올개조합필요가 잇스나 여시경비관계로 계초하지 못하고 학교당국에서는 거정중에 잇섯던바 이말이 차차 보부형측에 퍼리엿든지 그학교에서 약일리가량되는아산군 배방면장재리(牙山[illegible]) 사하엿다 메사는[illegible]이 삼[illegible]에 기주하는 [illegible]부인[illegible]씨도 알게되어 지난 삼일에 그학교에 차저와서이번에 귀교에서 교기개조할여대하여 맛지못하오나 교기대금이백원에 보태어 쓰시요하고 금삼백원의 기부를신청 하엿다한다 이에대하야 학교당국은 물론 일반여자들은 썩외미거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李得河女史美擧

二千圓을敎會에

【新市】 평북구성신시(龜城郡新市)리득하여사(李得河女史)(七[illegible])는 얼마전 신시예수교회 허두칠목사(許斗七牧師) 백일현(白日現)원대록(元大祿)량장로를 청하야노코 자기소유인 귀성군사기면 양산동소재인 전,산림(田,山林) 시가이천원어치를 교회에 자치하사하엿다한다

煙氣된卅三萬圓

去年天安의담배갑!

【天安】 교육에기근을부르고잇는 충남천안에서는(天安)담배연기가 노리게 피엿는지 소화십이년도의 천안연초판매소에서 매각한 연초대금은 삼십삼만원에 사원육십칠전인바 전년도에비하면 삼만오천륙백이원육십전이증가되엿다 가령금년도에 때운는 으로 학교를짓는다하면 약일백사십교실은 넉넉히지을것이라 한다

십오세시부터 경성화수가되어우 급거정절을 지키면서 거초를떼 파와치의 수만금의 재보를차지하엿다 그리고 사회에투자지역을 벗지못하야서 일반의칭송이 놉다

關西體育界盛事

全朝鮮蹴球戰白熱

連四日間의競技日程

【平南支社發】 축구의카―니발제십회 관서축구대회는 사실 천조선축구대회의 경신기(競技)에보지중 벌하는수만 판중의 경탄성(驚嘆聲)을의우리반이다 십이일부터 하로하로 지향할 에따라 경기는점점 고조될것이 나 이번대회는 첫날부터 평양파 평축(平蹴)에 멤바―를포함한 「연전보전의鐵壁」(延專普專)의 최조 OB의 대접동해관주로 를보합 축구단의후성(盛興) 고려(高麗)축구단 에멍[illegible] 부터 평양빌딩의시합이관것이다 십오일중앙방송국(JBBK)에서 전재경(田在經)아나운서―가 전조선에 중계방송을 하게되엿스니 어리하여 문자그대로 전조선의 축구팬이 일주일쪽(一週一讀)에 흥분하게 되엿다 그리고 일정과 시간할은 아래와갓다

第一日

1	(實業) 大 平―木 工	(主審車載翰正午開始)	
2	(同) 久 田―兵 友	(主審朴載嵩午後一時二十分)	
3	(同) 平 壤―日 鐵	(主審崔顯浩午後二時四十分)	
4	(同) 咸 興―三 信	(主審朴榮錫午後四時[illegible])	
5	(靑年) O、B―高 麗	(主審朴永祚午後五時二十分)	

第二日

1	(靑年) 平 元―安 州	(正午開始 主審[illegible])	
2	(實業) (木工大平)勝者―勝者(兵友久田)	(午後一時二十分 主審安[illegible])	
3	(小學) 彰 榮―新 明	(午後二時 主審[illegible])	
4	(實業) (平壤日鐵)―(咸興三信)		
5	(靑年) (O、B高麗)―東 光	(午後五時五十分 主審金[illegible])	

第三日

1	(小學決勝) 新 明―東 手	(正午開始 主審[illegible])
2	(中學) 明 新―三 中	(午後一時二十分 主審金元[illegible])
3	(中學) 光 成―崇 商	(午後二時廿五分 主審金光[illegible])
4	(靑年決勝) 世勝者―本勝者	(午後四時二十分 主審[illegible])

第四日

一、實業決勝	正午開始 主審 朴[illegible]
二、靑年決勝	午後一時五十分 主審 [illegible]
三、中學決勝	午後三時四十分 主審 金光[illegible]

花郞苑興行

本報井邑支局後援

【井邑】 국악동호회하야 그년중 양국대에서 만흔호평을 엇어내는 가는데 우리민족에게 문화적감 회를주어왓고 흥취잇는단체의공 연마다 홈런하기하야 명예에 귀 국악단체로서 이원의성 과 되든 단성사일의 국악단체로 취를노리던 원을 정우재극장 공연이 초청하 야 오는 십사일 일간 당지 주산극장에서 공연하게되엿는데 특히 금번화랑원은 다년신국운 동단체로서 참신한구화 등 의 금번기공연으로 양심적인혁명

麗水特殊飮食店 組合發會式

【麗水】 려수읍내에잇는 각카페 또는 식당 서대에 특수음식점 (特殊飮食店)조합 조직을 철하고 지난 [illegible]일오후시 려수공회당(麗水公會堂)에서 발회식(發會式)을거행하엿는데 이와 방요배의 서사와 내빈측사가 잇슨후 서장훈시와 조합장인사 연회에 드리가 화기 애애한 가운데 호산시경에 폐회하엿다

流筏支障問題를

日滿木材總會에提議

鴨江水電相對로安義材木業者가

【新義州】 지난팔일오전 열시부터 청진부공회당에서 열린 일만목재협회총회(日滿木材協會總會)는 시국하에 상호자원개발의 중요안건을 도마에 노흔 사계의권위자들의 모임인만치 의안도의의자못중요하엿거니와 그중에서도 신의주목재상조합(義州木材商組合)에서 제안한제십호의안은 신의주와 안동(安東)의 두도시를중심으로 압록강(鴨綠江)의안각지의 목재업에 심각한 영향을끼칠뿐외라 목재업을 중심산업으로하고 존립하는 그지방의 사활문제인 관계상자못 중대한 관심이이에쏠렷다 즉제십호의안은 鴨綠江水力電氣事業때문에 流筏作業에 支障을 齎來하지안토록『땜』建設에當하야 朝滿兩當局으로부터 會社에 이點을 留意시켜 國境林業開發에 寄與하는바잇도록 請願할件인데 동의안이상정하게된 경위를듯건대 압록강수력전기(水力電氣)의 개발사업자체가 국책적사업으로 중대한것임은물론이니『땜』 설치의결과가 현재의 산업기구(産業機構)를붕괴식힐 위험성이 농후한가운데특히 림업(林業)에미치는 영향은 심하야 『땜』때문에떼(筏)를 나릴수업고 따라서 압록강류역전반에서 신의주와 안동으로흘려내리는 목재는 『땜』에마켜수송의길을 이저버릴것이요동시에 목재업중심으로 제지업(製紙業)·팔프·공업등을 종주산업(宗主産業)으로 여기고잇는 이들도시에는 실로사활문제가 되어잇다한다 게다가 회사측의 태도는자못교만하야 이들지방의 산업에 대하야 그다지관심을 갓지안코 따라서 무슨 종류나 대책을 세울려는 성의조차 업서보이므로 선후책을 수립해야 한다는것이다 의안심리에는 다소의 론쟁이 업지안엇스나 한지방의 문제가 되는 이문제가 기실은 일지방을 생살시킬수 잇는 중대문제인 경우에는 이를철저히 해결시켜야한다는 협의에 원하야 현안을 해결시켜야한다 는 협의한 지지로 원안에 가결된 의안은 협회총회의 청원으로되야 총독부와 만주국정부에 제출될것이라한다

松花、牧丹江岸

木材業者들合流

별항과갓치 압록강의 『땜』만이문제 될것이아니라 송화강(松花江)과목단강(牧丹江)에도 근대문화의 가저오는 피해가잇다하야 신의주조합에대하야 안동(安東) 집림(吉林)두조합의 공동제의로 압록강외에 송화강유역에대한것을 겨너도록 수정동의가잇서 가결되얏다 즉근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력전기발전은 송화강과 그지류인 목단강에도미치어 유구한역사는 토박한 경기좌세력의를 가진목재업의조합을 위협하는것이다 이두강의문제도 중인되는것 영향으로는 길림 하빈(哈爾濱) 두도시가 가장만흔타격을 볼것이라는데 별항의 압록강문제와 아울러 이들지방에 나타나고잇는 문제는 그추이가주목된다고잇다 폐 자기당선문화를 희생하게다 는 송화강과 목단강에도미치어 가격은 현시가와배와가치되리라하며 이제부터 한동화에게 소작이라는 어린뇌에서 자작이라는 기쁨을 주게되엿다고한다

李康福氏三百圓을 校旗代로寄附

【天安】 영정소학교(榮町小學校)는 천안공립보통학교라는 거년교육령 개정에따라 충남천안에잇는 천안공립보통학교(天安公立普通學校)의 후신인바그학교의교기(校旗)는 거금이 십여년전에 제작한것이므로 주하게될뿐아니라 이번에 교명을 개정함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

李氏畓三斗落을 大山校에寄贈

【高敞】 전북고창군 대산면공립소 교(全北高敞郡大山公立小學校)에서는 지난일년에 동교후원회를열고 여원들의 장시간협의를 하야 현교사의 신축동이 하고잇은 이종원(李宗源)씨에교섭하야 현소작농지를 자비로 화원 동에게 자작판매를 기회주자는 라엽하에 설립하에 임원 취의 교산까지 자비로서 교섭하엿 든바 조합이라하며 찬성한고

平壤의第二人道橋

急轉直下로實現?

府當局銳意硏究中

【平南支社發】 비약적발전을 하는 강서동평양과 성내와의사 이의 번잡한교통난으로보아 대동강우에 제이인도교가 절대로 필요하다는것을 이십여만부민 특히 구시가시민에게는 벌서 몇해부터 절실히 늣기게 되엿스나 방대한 가설비를 위한 이것을 어떠케하여보려고 애도 썻스나 노력한 가설비를 위한 국고보조(國庫補助)가 용이되지 못하여 부민의 한탄속에 무지 개가티 사라저버렷엇고 지나 사변을 중심으로한 철기근(鐵饑饉)에 대본벌용은 일층부민을비판 케하엿다 그러나별문지역을새로 부에편입하고 공장지대로서 비약적발전을 하는동평양과의 사 이에는 일층내왕이 번잡하여저 서태고식(太古式)의 도선(渡船) 으로는도저히편다하여도 놋고피를고 위험하여 부민의희망 내이고잇 고현인교를 완성한 교통지옥 은이루고잇서 어리한현상은 해 마다심각하여만 갈것이니 이제 는제이 인도교의 가설은 교통 상필요한것을 떠날수도 업는 현실적 긴급사로 되여잇다 이 에평양부에서도 만난을 제지하 고명년부터 그가설을 실현할 오를한후 그구체안의 연구에착 수하엿는데 현정세로서 재래와 가티철(鐵)을 중심으로한 사뻬 오십만원이나드는 교량은 절대 로불가능하므로 이번에는특 히철근(鐵筋)콩크리―트식으로건 설할계획을 세우고 연구중인데 이식에의하면 삼십팔가량의 정도 되리라고하며 일반부민은 보조 가근소하더래도 나아가서는 보 조인가가 얼마라도 부자신의힘 으로 기채(起債)를 하여서라도 명년도에는 반드시가설하여 여 번이소식도 도재래의 수자의정 례와가티 부민을 실망시키는정 도에 되지안키를 기대하고잇 는데 [illegible]

兒童愛護週間

【高敞】 지난오일부터 아동애호 주간의 기념식을 거행케되여소 학교생중학교생 기행렬로선전을 하엿거니와 특별히 고창면장주 례로 당지여배당에서 지난칠 일오시부터 마치연단바 십일오후 연사는 당지의대의 주악개 연독창 유치부종등으로 흥미진 진한 개회가열리엇다고한다

效能은未知數나 世稱은萬病通治

數十年間續飮하엿다는老人의 因緣談은이러이러

소화십년사월 곡우절에 전남 포도당연구소(葡萄糖硏究所)에서 그 결과는 전기와가튼 인데 그 결과는 전기와가튼 조선약의회(朝鮮藥學會) 다른성분이잇는것은 벌서차못 한것을 조선약의회 에대하야 어린이검사 또는파화 기편지 재신평(再申請)에 기재 적시험하여보려잇는데 포도 발표한바도잇다한다 그리고 포도당분이드러잇서엿다한다 라고 말한다 물론 그지 하고라도 포도당성분만잇는것은 한가지를 마는 그리고 그 약물을 시험조사한 전남도의생시험소주임대원(全南道衛生試驗所主任大原)씨말을드 르면 다음과갓다 거제수가 유명하다하야 매년 곡우절에 연만명식이 각지로 부터모여 그약물을먹고잇스나 취하야 약상일만에 시험검사한 바 결과로 대원(大原)씨자신도 화 학적으로 검사하여 보앗는데 실험수어선 좋쿄주어선 좋로 다시 본조이어잇기에 시험해하여보앗기 야 약수에대한 성분등을알어 보기 에대하아 의학적연구가 연구가 학적으로 검사해서 한다 약수는 재취하지 십여시간만지 나면 물맛이물른 번까지 도자 거의싀여지지는업스나 그러나 그시험한결과로 약수도 미황수가 아직언는것은 으로 그 결과로 소개될것이 만흔 만큼 파화적연구가 조선에서만 바들것이 잇다 그러나 솔 경도에 지내지도못하나 그반면에 약이신년간 약수를 계속하야 먹 고 효과를보앗다는 전학영학사(全 北錦山)에사는 이성도 (李性道)씨 의말을 다 들면 [illegible] (사진은약수터에모여든부녀자들)

다음과가튼 말을들려준다
기자 노인은어대사십니까
노인 본래는 경상도상주(尙州)서 살다가 지금은 전북도금산 삽니다
기자 여기는 언제부터오셧소
노인 약물먹으려왓소
기자 이약가를 먹은지 어찌말 로 매년빠지지아니하고 약물 을먹으러다닙니다 우운
고의것소
노인 소시때부터 몸이원체약하 야 수년전부터 병에알흐며 고 다가 이십년전에 화엄사를들럿 다가 약수를 먹어보앗드니 식욕이 조화지고 의장병이나엇 스며 신경통도잇섯는데 이약 물을 먹은때부터는 전체하엿는 데 장이시 몸이와서 심사를 국화엄 사일대에는 대흥왕을 이루는것 은 큰장판이아닙니까 이와가티 거재수약물은 만병 통치의 약이라 (누구나 약을 권하시)

慶北支社
總務 李相許
支社員 李東雨
同 崔晶愛
同 朴重煥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九日附
謹告

大召院分局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位置 忠州郡利柳面大召里
變更 昭和十三年五月十日
分局長 李相勳
右新任
分局長 金秉得
右依願解任
朝鮮日報社 忠州支局 白

天津支局
記者 金東信
同 李鍾璉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高原支局
總務 金鎭洙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寧邊支局
駐寓班記者 崔泰涉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榮州支局
記者 權鍾範
同 金泰鎭
同 辛仁鉉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原州支局
總務 曹圭文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總務兼記者 金鍾浩
記者 金東云
同 申洪植
同 金秋光
同 李鍾鎬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光陽支局
位置 全南光陽邑內
昇格 昭和十三年五月一日
支局長 許敬永
朝鮮日報社 白

謹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支局으로昇格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博川支局
位置 平北博川邑內
變更 昭和十三年四月三十日
支局長 金在淸
右新任
支局長 吳允實
右依願解任

天津支局
位置 天津日本租界[illegible]
設置 一九ノ三
支局長 金秀都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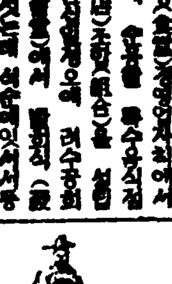
社告

三千浦支局
記者 鄭[illegible]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舍人支局
總務兼記者 金相部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十一日附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鍾超 畵
【001】



소굴 (六十八)

[illegible] 리어지고 「죄인 잡어드렷소」 하고 소리치는데 지와금이로 밤의 서명과 년계(年齡)과 꺽정이와 관계된것을 몃마듸 못고나서 「꺽정이의 어미가 어듸잇느냐」 하고 물으니 「처섬골 근처에 잇소이다」 하고 로파이는 대답하엿다. 「죽은년의 무덤이 천섬골 엇 는냐」 「아닙니다 꺽정이의 죽은어미의 무덤은 양주에 잇슴니다」 「꺽정이의 어미아비는 다 죽 엇는데 웬 산어미가 또 잇 단말이냐 이놈 네가 얼마나 죽구시퍼서 거짓말을하는냐」 「꺽정이의 어미가 잇거나어거 나 소인에게 꾀로를 이해상관 이업습는데 공연이 업는것을 잇다구 거짓말을 엿줄리가잇 소리까」 「꺽정이의 산어미가 정녕 엇 느냐」 「네 잇소이다」 「그럼 산어미는 무슨어미구 죽 은어미는 무슨어미냐」 「죽은어미는 나흔어미요 산 어미는 양어미올시다」 「꺽정이가 양사갈일이 업는데 웬 양어미가 잇단말이냐 그 게 거짓말아니구 무어시냐」 「꺽정이의 가문내력을 소인이 알외리다 이 장짜 곤짜 어 찬성대감 부인의 고모되는꺽 정이의 할미가 자식형제를두 엇습는데 큰자식은 항룡서대 솝구 자근자식은 이찬성부인 을 바라구 서울을 올라왓다 가 양주 쇠백정의 데릴사위 가 되어서 양주서 푸주를햇 소이다 쇠백정의딸년이 꺽정이 삼남매를 나엇습는데 꺽정이 의 손우누의는 이찬성부인의 사촌올케가 되엇다가 서방어 일직 죽어서 청춘과부로 천 정살이를 하게된것이 지우금 꺽정이와 가치지내옵구 꺽정 이의 동생은 년전에 영주옥 중에서 그아비와한께 죽엇소 이다 꺽정이의 아비가 살엇 슬때 그형이 딱자식하나두 두 지못하구 죽어서 그 형수를 항룡서 데려오구 꺽정이를 랭 에 꺽정이의 큰어미가 꽃 양 의모오루 형수에게 바친게됨 다 포천뿐아니올시다 당장꺽 정어 수하에잇는 도둑놈들두 두령이나 꺽정이에게 신임밧 는부하놈들에는 꺽정이의 일 신상 일을 소인만큼 아는놈 두 별루 업소이다 잘알지못 하구 소인의말을 거짓말이라 구하오면 소인이 억울하오니 황히 미리 이런말슴을 알외 옵는게올시다 제일 조키는조 연이 라중이나 포교들과 가 치가서 잡어오는 기찰을 다 달해볼서 꺽정이의어미가아 니거든 소인을 어떠케든지치 죄하시오」 로파이의 대답이 처음부터조 금도 구김이 업서서 누가듯 든지 거짓말가지안코 참말가티 드 로판이를 장성에 놀우가다가 다 두어두라고 분부하야 라졸들이 밧그로 끌고나간뒤에 지의금이 동의금과 도사들을 돌라보며 「그놈의 말이 아주 허무맹낭 한 거짓말 갓지안치?」 하고 물으니 「그놈의 대답하는것이 별루 어 색한데가 업서보엿드단」 「꺽정이와어비가 이찬성 호취 보인과 척의잇단말은 나두전 에 들엇든말이오」 어니라 먼저 꺽정이의 어미잇 동의금들이 이러케 대답한뒤 단말을 의심하든 도사까지 「그놈이 섹건생긴것은 흉물스러 우나 하는말은 바이다 거짓 말갓진 안습니다」 하고 의심이 적어졋든모양으 로 말하엿다

어미올시다 꺽정이 나흔어미 는 벌써 죽은지가 오래지요 만 양어미는 아직두 엄마를 대살엇지 피둥피둥하외다」 「지금 네말에 일호 거짓말이 업지 말려잇어봐서 만일 거 짓말이 섞겻스면 장하에 물 고를 내주 원한을 못하엿단 「원한을 못하다니요 이겟습니까 다 만 한가지 미리 알외올 말 씀이 잇습는데 들어주실는지 오」 「무슨말이냐」 「소인의 말과 틀리는말을 하는 사람이잇슬거든 그사람과 소 인과 대면식혀주시스면 조 켓소어다 그건 빈말이아니오 라 어목정은 포청에두 꺽정 어의일을 잘아는사람이 업서 서 꺽정어의기집이 서울안에 섯이나잇는것을 소인의말을 못가 비로소 알구 뮈기집이 그리케만 홋다구 모두 붙러옵디

感染시키지말라
感染되지말라
梅毒의危險
注意해야할遺傳梅毒

徽菌의增殖하기쉬운昨今
晩春으로부터梅雨期에 걸처서氣候가아주조치못해진다 아모리晴天이繼續되어도 濕氣가잇는故로 病人에게는이것이 大端히나뿐影響을미치게한다
特히梅毒잇는사람은 마치物品에濕氣로因해서 곰팽이나는거와가티氣候不順에따라 黴菌의增殖, 病勢의 惡化등 조치못한 病狀을나타내고잇다 따라서 이時期에 病菌은血液만이아니라 脊髓까지 侵害하는故로 이것은가장危險한것이니 만약腦中梅에達하면 이때를當然히 麻痺性이나脊髓癆에걸릴 수박게업다 俗間에서는 事實梅毒으로 骨絡이라하지마는 骨內梅毒이 되여서 深部에侵入하야 骨疼, 고무腫을이르커서 無慘히도 骨肉을 腐蝕해드러간다

遺傳梅毒에는 이危險이잇다
다음은 遺傳梅毒의危險인데 이것은 男便에게梅毒이잇스면 當然히 妻에게感染되고 妻의梅毒은子息에게感染된다 卽遺傳梅毒으로, 이遺傳性이子孫에이르러서는다만外形에나타나는梅毒만이아니라 精神的으로 가령白痴, 氣狂, 慢質者가되거나 何如間藥으로는낫지만는不具同樣의 아이로되는경우가 許多한것이니 世間의젊은夫婦된사람으로 만약病毒이잇슬때는感染시키잔코 또感染되지안토록 서로서로注意하는것

거기에는驅梅內服藥
이 肝要한데 어느것이나 早期治療가必要하다
이 十餘年來好評이잇는 ベルツ丸은 非常히만흔나 驅梅藥의種類는 非常히 常備服用을勸告한다 ベルツ丸은 그效果가確實하고 自然스러워서 服用함을따라 血液이淨化되며 毒素가體外로 排泄되는同時에 氣分이明朗하여 精神이 時快하게 되는것을要컨대 內臟器官의 回復을意味하는것으로 血色을 좃케하고食慾을 늘게하고 活力을 나게하는等여러가지實效를 招來하야 體驗者에게 好評이 자자하다
梅毒, 胎毒, 痼毒, 癩疾의 皮膚病, 여드름, 부름, 濕毒, 冷毒, 橫痃, 腦梅毒, 遺傳梅毒, 脊髓癆, 神經痛등마지수, 動脈硬化, 便秘等모두梅毒性諸病으로 辛苦하는 사람은먼저本劑로 徹底的治療를 하기바라마지안는다

梅毒을文化病이라고하지
마는이것은 世界의文化發展에 따라 무슨일이든지 複雜化하고 그結果 이러한病이 流行하는것을보게 되는데면저 梅毒患者는 한사람이라도적게하기爲하야 患者自身이注意해서 初期梅毒의 人으로 第二期, 第三期梅毒의人도 하도록하지안으면 絶對로 이病은 世上에서驅逐할수업다 梅毒에걸 리면

當然히最初는淋巴腺腫脹
을招來하야 普通말하는가래톳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꼿치잔코두면여드름가트 其他여러가 지皮膚病이 出現하는데 現在여러 가지症狀이잇스면 精神的으로憂鬱, 不快感을招來하야 頭痛, 眩暈, 不眠, 疲勞, 貧血가든一般神經衰弱同樣의 自覺症狀이잇는外에 脫毛, 咽喉腫脹이잇고 特히 咽喉障害에는 舌, 扁桃腺, 口蓋가른데 病菌이集結하는바 여기 을 普通梅毒性앙기나라고 해서

咽頭나喉頭가붓고
게진무르는炎症
狀을呈하게된다 그래서 소리가 變해오든 俗에서도 病소리가 쉬여잇스면 저사람은 쟈병이잇 다고하는데 다시梅毒가第三期狀 에드리가 樂二期의 梅毒性에 꺼저

梅毒과 體毒
便秘와皮膚病에
베루쓰
ベルツ丸

(主效)
梅毒、胎毒、痳毒、橫痃、腦梅毒、遺傳梅毒、痔瘻、淋毒、冷毒、脊髓癆、ㅣ마치스、痼疾인皮膚病、여드름、動脈硬化、便秘
(價藥)
二十日分 三圓 二十五日分 五圓 七十五日分 十圓
百六十日分(普 通)二十圓
二百六十日分(家庭用)三十圓
送料 內地 各十五錢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淸二
振替東京百五番·電話浪花八十番·九十番
代理店 京城大井·木村藥房 釜山新興·前田藥房
全國有名藥房·百貨店藥品部에잇슴

十三日밤까지 東洋劇場에서
李瑞求 作
벗못본地平線
全三幕
靑春座中央公演最終週
目下上演中大賀讚을바드는名劇「벗못본地平線」파靑春座員의熱演도 明日(十三日)밤까지 만이외다!

劇團靑春座
▲南鮮巡業月日及場所
五月十五日 十六日 …木浦……平和館
同 十七日 …大田……大田劇場
同 十八日 十九日 二十日 …釜山……大生座
同 廿一日 廿二日 廿三日 廿四日 …晋州……晋州劇場
同 廿五日 廿六日 …馬山……共樂館
同 廿七日 廿八日 廿九日 三十日 …大邱……大邱劇場
右記日程대로錦地를拜訪하옵게되엿사오니 該地方人士의 百倍御聲援이 주시기바라옵니다!
靑春座員一同

▲東劇晝間映畫▼
……十三日낫부터…四日間……
佛아리스社特作(日本版) 「はたかの女王」
쯔세유롱·아네이커스·가샤1○·가 피2오 이웟론듀 共演
獨日회社特作(日本版) 「勝利者」
게아·오즈 한스·알1베르스 主演

東洋劇場

物價不當引上을 未然에 防止하라
─稅務監督局長會議─ 南總督訓示

於에 稅務監督局長會議를 開함에 當하야 稅政運營에 關한 所懷의 一端을 言하야 各位의 留意를 促하려고 생각한다

昨夏事變勃發以來 上으로는 大御稜威下에 忠烈한 將兵의 奮戰과 銃後國民의 鞏固한 團結에 依하야 戰局全面에 亘하야 赫赫한 戰果를 거두고 皇軍의 占領地域에는 新政權의 誕生을 보아 我帝國의 理想인 八紘一宇의 道義的平和關係가 大陸에 擴大함에 至한 것은 참으로 同慶에 不堪하는 바이다

그러나 時局의 解決은 前途가 遼遠할 뿐만 아니라 [illegible] 國際勢力이 依然하야 其背後에 策動하고 잇는 情勢에 鑑하야 我國民은 서로 團結을 鞏固히 하야 [illegible] 時局의 [illegible]에 備하는 바이 [illegible] 기를 [illegible] 하는 바이다

朝鮮이 國防上 重大한 使命을 有한 것은 [illegible] 치 안는다 即 本官이 時局對策委員會를 組織하고 官民一致의 旺盛한 [illegible]을 遂行하려는 所以이다

政府는 第七十一、二、三回의 帝國議會에서 無慮七十四億圓의 臨時軍事費支出의 協贊을 어더 其一部를 널리 銃後國民에 負擔케 하야 써 物心兩面으로부터 時難克服에 協力케 하기 爲하야 一般會計에 잇어서는 昨年度에 一億圓、本年度에 三億圓의 增稅를 斷行하고 이것을 臨時軍事費特別會計에 繰入하게 되엇다

朝鮮에서도 此方針에 順應하야 朝鮮의 一般納稅者의 負擔能力 等에 對한 特殊한 事情을 考慮하야 各種의 特例는 두엇스나 大體로 內地와 同一한 內容의 增稅를 行하야 其收入中에서 昨年度에 잇어서 百五十餘萬圓 本年度에 잇어서 八百九十餘萬圓을 臨時軍事費特別會計로 繰入케 하고 其賦課徵收에 對하야 各位의 努力을 바라는 바이다

今次의 增稅는 我國刻下의 急務인 生產力擴充을 阻害치 안토록 特히 考慮한 것으로 時局影響으로 因하야 特히 負擔能力이 增加한 者及現下의 國情에 鑑하야 其消費가 比較的奢侈的이라고 認定하며 따라서 其節約을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物品에 重課하는 方針을 取하는 同時에 一面必要한 데 對하야서는 各各負擔輕減의 措置를 講究하고 잇스나 個個의 納稅者에게는 相當히 負擔이 增加하는 者도 잇다고 생각되므로 各稅의 運用에 對하야서는 職員으로 하여금 充分히 法規의 硏鑽에 努力케 하고 課稅의 適正을 期하[illegible]

아저어도 [illegible] 지 안토록 [illegible] 하는 同時에 臨時增稅의 趣旨를 一般民衆에게 理解케 하며 納稅義務의 [illegible] 를 [illegible] 하도록 考慮하기를 바란다 [illegible]

昭和十三年五月十二日 朝鮮總督 南 次郎

稅制根本的改革
稅務監督局長會議

[illegible] 局長會議는 [illegible] 第一會議室에서 十二日午前九時開會 總督訓示에 이어 [illegible] 第一日은 各監督局長으로부터 管內狀況의 報告를 듯고 第二日(十三日)은 總督府側의 諮問事項에 [illegible]

一、中央地方을 通한 稅制改正에 關한 意見

二、酒造組合令施行後에 잇서서의 酒類生產販賣의 統制

[illegible] 保田名古屋稅務監督局長、拓務事務官、竹內大藏省主稅局經理課長、宮崎同課長 [illegible]

米移出五月上旬까지
前年度總計凌駕
累計七百二十三萬八千餘石
無前豊作이 준 好況!

總督府財務局調査에 依하면 五月上旬까지의 米移出累計(昨年十一月以後)는 七百二十三萬八千四百八石에 達하야 前米穀年度(十一年十一月부터 十二年十月까지)의 全年度總移出高七百十六萬一千二百十一石을 突破하는 活況이엇다 이는 十二年產米가 未曾有의 大豊作인 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이엇든 때문에 이가튼 移出增을 보인 것으로 半年間 하고 一旬間에 前年度의 全年度間移出高를 凌駕케 된 것인데 이로써 今年度移出豫想一千萬石은 더욱 確實視케 되엇다

그리고 五月上旬까지의 米移出高를 前年同期에 比하면 二百三十九萬三千三百七十八石의 增加이엇다

粟輸入累計 十萬石減少

粟輸入高는 五月上旬도 三萬九千六百石으로 前年同月보다 減하고 十一月以降累計로 보면 三十七萬二千二百五十石에 不過하야 比前年同期 十萬一千九百六十八石의 減이엇다

五月一日在米 七百卅一萬石
比前年同期二百卅八萬石增

【農林局發表】五月一日現在朝鮮殘存米總數量은 七百三十一萬六千八十四石으로 前年同期의 四百九十三萬四千九百二十石에 比하야 二百三十八萬一千百六十四石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그 產地別及道別數量은 如左하다

產地別	
朝鮮米	七、三一五、〇二三石
內地米	五四一
臺灣米	五一七
外國米	三
合計	七、三一六、〇八四石

道別	
京畿道	一、〇四六、七五六
忠北道	一七九、四二五
忠南道	六四二、三三八
全北道	一、〇三二、一一六
全南道	九二二、三七〇
慶北道	六〇七、五三九
慶南道	七五一、四七二
黃海道	四九三、一六四
平南道	六六四、一六五
平北道	三三九、〇八二
江原道	二八一、八二九
咸南道	二六六、〇五四
咸北道	七八、六四一
鐵道局	九、八二八
北鮮鐵道事務所	二〇四石

京城勞銀騰貴
一割一分九厘高

鮮銀調査=京城勞銀은 實需期에 드러서 騰貴하야 四月中의 指數는 一九二、四六포인트로 前月에 比하야 六、二八포인트(三分三厘)高이오 이것을 前年同月에 比하면 二〇、五〇포인트는 一割一分九厘二毛의 大幅騰貴이다 이제 前月比較業種別로 보면 아래와 가트다

◇騰貴 朝鮮人옹장이 支那人옹장이 內地人미장이 朝鮮人미장이 內地人煉瓦職 支那人煉瓦職 內地人石工 支那人石工 內地人도비 벽돌職 도장職 鍛冶職 表具師 목도人夫

◇保合 內鮮支人木手 內地人옹장이 指物 桶屋 瓦職 內地人表具 車製造 內鮮支人夫

◇低落 井戶職

六千餘萬圓보다 約九百萬圓이 縮少하얏다 이것은 月央의 需資閑散期인 때문인데 이 近處에서 小增減하야 그리 縮少는 업슬 것이라 한다

鮮銀券縮少

十日鮮銀의 鮮銀券發行高는 二億五千百五十五萬五千六百三十圓으로 四月三十日의 鮮銀券發行高의 一億[illegible]

朝鮮內會社
拂込資本九億

四月末現在朝鮮內會社資本現計는 五千二百二十七社 公稱資本十五億七千七百三十一萬七千圓 拂込資本九億六千八百四十八萬九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社數에 잇어서 二百三十九社 公稱資本에 잇어서 三億四千百九十六萬七千圓 拂込資本에 잇어서 二億二千六百六十五萬九千圓이 各各增加하엿는바 內容은 如左하다(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株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倉紡、日本紡 太陽等着工

資金調整法으로 問題가 되여 잇든 朝鮮內纖維工業中 特히 認可를 受한 倉紡、日本紡、太陽레-용은 各各本月부터 着工하얏다

◇日本紡京城工場 永登浦工場은 最近工事請負를 決定하고 能力은 人絹絹布製織各五萬反

◇太陽레-용咸興工場 스파十噸、人絹八噸의 新工場建設은 目下指名入札中으로今月末부터 工事에 着手하야 明春完成

◇倉紡群山工場 스파十噸、人絹五噸으로 어메入札을 終了하야 本月初부터 着工하야 明春完成의 豫定

私鐵建設費
平均二割昂騰

新設私鐵은 前年以來 連續的인 建設材料高의 脅威와 最近의 物價高에 依하야 建設費는 大膨脹을 示하고 잇다 建設費膨脹보다도 憂慮된 資材入難은 多率히 解消되여 京春、平安、多獅島、三陟의 各鐵道도 豫定과 가티 完成을 보게 되엇스나 建設費의 膨脹은 平均二割以上으로 보고 잇다 이 結果는 當然資本負擔加重을 招致치 안흘 수 업다고 보고 잇다 한다

睡眠鑛區가 四割
重要鑛物增產實施로
利權鑛業家에 加一棒

重要鑛物增產令은 十二日에 公布되여 大體로 六月一日부터 施行될 모양인데 本令은 鑛業權者에게 事業設備의 新設、擴張、改良乃至作業方法에 強制命令을 發할 수 잇고 鑛業權의 強制讓渡其他 睡眠鑛區의 積極的開發을 命할 수 잇게 되엿다 그런데 鑛業界의 活況에 不拘코 鑛業權의 賣買만을 目的으로 하는 多數의 鑛業權者가 잇서서 主要한 鑛物別 睡眠鑛區數(十一年末現在)는 아래와 가티 多數에 達하고 잇는 事實에 鑑하야 本法의 影響하는 바는 相當히 廣範圍에 미칠 것이라고 豫想된다

鑛種	作業	休業
金銀鑛	[illegible]	[illegible]
銅鑛	[illegible]	[illegible]
亞鉛鑛	[illegible]	[illegible]
鉛鑛	[illegible]	[illegible]
硫化鐵鑛	[illegible]	[illegible]
망강鑛	[illegible]	[illegible]
탕구스텐鑛	[illegible]	[illegible]
水鉛鑛	[illegible]	[illegible]
金銀銅鉛亞鉛其他鑛	[illegible]	[illegible]
黑鉛鑛	[illegible]	[illegible]
石炭鑛	[illegible]	[illegible]
雲母鑛	[illegible]	[illegible]
砂金	[illegible]	[illegible]
明礬石	[illegible]	[illegible]
螢石	[illegible]	[illegible]
重晶石	[illegible]	[illegible]
마그네사이트	[illegible]	[illegible]
總計	三、九〇二	二、六八一

그리고 事變에 依한 活況에 依하야 前記休業鑛山中에는 어떠한 作業하고 잇는 것도 잇스나 新鑛區의 激增에 依하야 睡眠鑛區의 比例는 最近에 잇서서도 依然 四割가량을 占하고 잇다 한다

六月一日實施

十二日附로써 公布된 重要鑛物增產令은 內地와 同一으로 五月二十日頃에 施行勅令이 公布되어 內地側의 準備關係上 延期하므로 大體로 六月一日부터 實施될 모양이라 한다

家內工業積極振興
共同作業場施設補助費倍加
今年度總額六萬五千圓決定

朝鮮農山村의 家內工業은 農家의 主要副業으로 其振興은 農村更生上 極히 緊要한데 最近大工場製品進出로 因하야 從來와 가튼 原始的施設에 依한 生產으로서는 壓迫을 바드므로 總督府에서는 其振興策을 考究中이든바 能率的인 機械設備를 有하는 共同作業場을 設置하고 生產品의 品質向上과 增產을 圖하게 되엿다 卽 本年度부터 共同作業場國庫補助를 從來보다 倍加하야 四萬七千圓으로 하고 이에 道費補助一萬八千餘圓 計六萬五千餘圓으로써 小工業으로서 가장 將來性이 잇는 共同作業場의 設置에 努力하기로 되엿는바 此共同作業場의 設置에 對하야 全朝鮮十道에 二十七個所의 補助金을 交付하게 되엿다 其種類別 國庫補助에 對하야서는 十日附로써 各道에 指令을 發하엿다

織物整理共同作業場 製紙共同作業場 陶器共同作業場 窯器共同作業場 木器共同作業場 洋裁共同作業場 木工共同作業場 計

一 六 三 一 一 一 一 二七

積極行動躊躇

玉整理가 끗난 市勢이니만큼 人氣는 依然 戾買에 기울고 잇스나 低價에는 押目買物도 相當 [illegible] 市勢는 戾買人氣와의 中間에 끼어 [illegible] 한 保合位를 겨누는 買氣가 [illegible] 圈內의 保合을 거듭하고 잇다 今朝의 寄付高를 보아서는 一場見進으로 戾新價를 보일지도 모르나 高價에는 다 가는 形勢이엇스나 [illegible]

後場保勢

後場은 다시 鐘紡二百五十三圓二에 寄付한 後 [illegible] 四十六圓二 鐘紡二百五十三圓七에 大引되다

株式 少戾이나 伸悩

今日의 市勢(十二日)

前場硬化

昨後場의 堅強이 [illegible] 今朝에는 諸株一齊上向하야 東新一圓二高 鐘紡二圓九高 大新一圓二高 滿業五高 朝新四高 等으로 商勢一轉硬化하엿스나 追氣味로 警戒되어 高價에서는 伸悩를 보이엿다

戰局展開待!

日銀報告에 金利水準堅持를 言明 [illegible] 期待薄이 되고、統制의 [illegible] 不許하는 光景이데 이 買氣를 比하게 하야 [illegible]

國債小高下

【東京電話同盟】依然新規材料가 업서 當限落도 兼하야 場面은 一高으로 閑散하며 市勢는 甲號五分어 五錢少弱을 보인 外에는 큰 變化가 업고 外債도 米貨五分半어 探鑛關係로 十錢高가 되엿슬뿐어오 其他는 閑散保合으로 全面的으로 市勢는 小高下保合을 보엿다

期米 在米增加 氣崩

前場續進

今朝는 五月一[illegible]

南場六感

◎株……今朝의 高寄로 商勢一轉 硬化模樣이나◆高價伸悩는 依然하야 何今保合圈을 未脫◆上進코저하면 財界實勢의 威壓에 壓倒◆低落下向하면 價位觀과 戰局展開期待의 買物이 下支◆어디까지 一起一伏 一伏一起의 場面을 反復◆어떤 有力한 動機도 이 保合圈을 脫却하기 前에는 實實面積極行動이 困難◆鐘紡增資問題는 相當한 研究가 必要해도 계하日을 要할 모양이오◆期待되는 戰局도 一兩日에 急旋回를 보이기는 어려울 못하야 ◆當時는 保合繼續이

◎米……內地殘存米의 第一次發表는 前年보다 十二萬四千餘石의 減少로 發表는 第二回三回의 發表는 또 如何할까 又는 朝鮮米의 殘存은 어떠한 程度일지 此次 目前의 注目하는 ◆殘存米의 減少는 期待하는 바 행동을 加하야 왓스므로 그다지 큰 波瀾을 期待할 수 업고 다만 天候의 如何가 大勢를 左右◆過去 四、五十日間을 두고 비가는 비가 쏘다도록 업서 麥作의 凶作은 既定事實이오 또 前途惟 어런에 비가 [illegible] 못하면 [illegible] 풍원?雨◆ [illegible]

强氣側의 主張

當地市場은 三期萬通하야 地場의 賣買成은 特히 某某有力側은 旣히 決定的 態度를 整理하고 渡來한 方針을 세우고 잇습니다 不拘하고 買方은 일직이 賣拔하지 안코 高米價時代의 到來만을 期待하고 잇다 實로 强氣側의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農繁期에 入하는 天候로 본다할지라도 近二個月間을 두고 제법비가 올 비가업서 麥作은 벌서 凶作을 免치못하게 되고 播種에 잇서서도 成績이 不良하면 이 不良한 편으로 이 苗를 맛보게 되엿스니 그 前途成育이 不良할 것은 足히 알 것이오 또 諸物價騰貴의 比例로 본다할지라도 米價는 到底히 低어므로 深入홍은 期待할 수 업다고 한다 勿論 前途大勢騰貴에는 弱氣側으로서 말을 것은 遠한 點으로 본다든지 또는 最高公定米價의 突破與否의 點을 考慮하야 買占은 時期尙早의 感이 업지 아니하다고 云云

殘米一次發表
十餘萬石減少

五月一日現在內地殘存米 第一次發表는 一千二百九十三萬五千餘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十二萬四千餘石의 減少를 示하엿는데 [illegible] 業界의 氣配는 十餘萬石의 減少로 이 數字에 反應하야 [illegible]

後場氣崩

[illegible] 五月一日現在 朝鮮米發表의 [illegible] 增加로 [illegible] 五十一錢에 反落하엿스나 四節五十五錢四節四十二錢에 低落되엿다

正米 續騰裡 堅强

京城上進

在米數字第一次發表는 減少로 新甫以來의 市勢는 又復天井에 向하야 上進하엿다 一部에는 減少數字를 不許하며 再度 [illegible]

仁川少高

內地殘存米第一次發表의 減少로 氣配는 强하엿스나 定期의 意外伸悩와 內地入注不振等으로 買氣는 傍觀되면서도 持米側의 態度는 强硬하야 昨日보다 五錢乃至十錢高이엇다 ⊖穀良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銀坊主三等 [illegible]

釜山强硬

內地在米減少에 市勢는 硬化하야 [illegible]

大邱閑況

斯界의 重材인 米穀表中의 今日이라고 一般은 警戒氣味가 濃厚하야 朝來 內注不振도 兼하야 取引은 極少하며 雙方傍觀으로 冷靜한 場面이다

群山昂騰

軍需要旺盛으로 當地以은 朝鮮內唯一의 大不足이 [illegible] 米도 逐減되는 때에 苦待하는 殘存米의 第一 [illegible]

木浦不變

[illegible]

明治證券
朝鮮取引所證券取引員
社長 金貴鉉
京城 代表電話本局②四一六七
顧客本位 眞實第一

今日財界 十二日

◆米 (單位十錢)

◆株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海外經濟 十二日

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鰯油粕·麥粉

對外爲替

金銀價

正米

正租

雜穀

綿絲布

滿洲商況

京城物價(十二日)

株式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期米 ◆朝取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糸 ◆橫濱生糸◆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株式 期米 玉 マルタマ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期米 益 康益夏 仁川